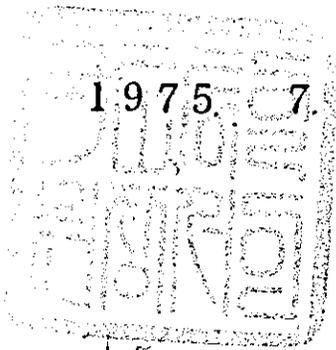


# 韓半島에 對한 強大國의 基本構想



國 土 統 一 院



이 報告書는 國土統一院 75年度 學術用役に  
關한 最終 報告書로 提出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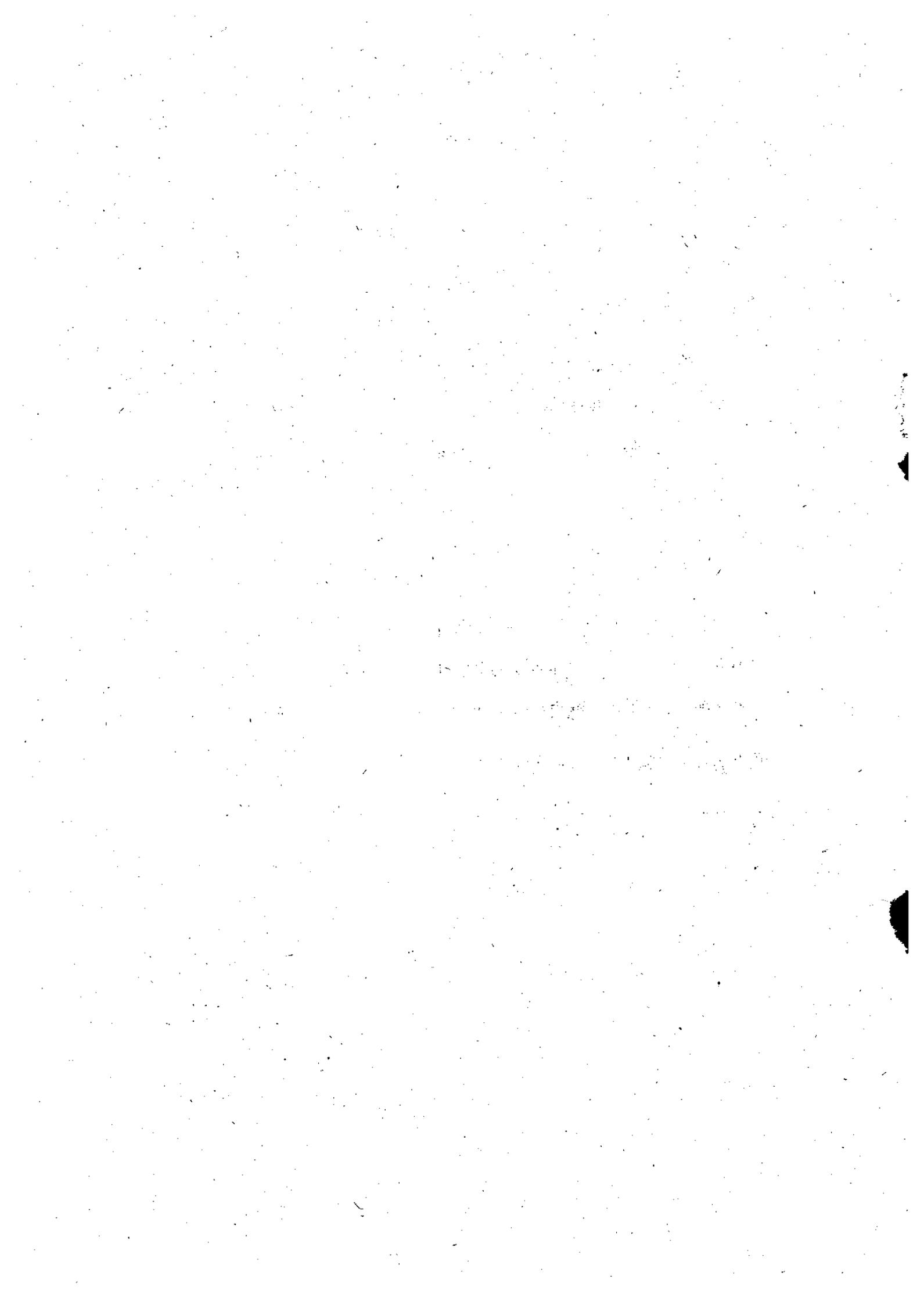
1975. 7.

研究機關 : 서울大學校 統一安保問題研究所

研究責任者 : 金 學 俊

# 目 次

第 1 章 序 論 .....	3
第 2 章 東北亞秩序의 變型 .....	6
第 1 節 美・中共의 對鄕트追求 .....	6
第 2 節 日本의 登場과 中・日復交 .....	9
第 3 節 蘇聯의 反應 .....	14
第 3 章 四強의 對韓政策 .....	17
第 1 節 70 年代 美国의 對韓政策 .....	18
第 2 節 70 年代 中共의 對韓政策 .....	35
第 3 節 70 年代 日本의 對韓政策 .....	45
第 4 節 70 年代 蘇聯의 對韓政策 .....	56
第 4 章 結 論 .....	63
註 .....	65



## 第1章 序論：問題의 提起

國家間의 相互依存性이 커지고 있고 國內構造와 國際體制間의 限界設定이 불분명한 現代 國際政治에 있어서, 外的 環境(external environment)<sup>1)</sup> 이 한 國家의 外交政策樹立에 미치는 影響은 어느 다른 要因보다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點은 특히 첫째 強大國의 周邊國家(예컨대 中共周邊의 東南亞諸國), 둘째 대립하고 있는 強大國 사이에 포위되어 있는 弱小國家(예컨대 2차 大戰前 獨·仏 사이의 벨지엄), 셋째 그 國家와 敵對的 또는 競爭的 關係에 있는 國家들에 포위되어 있는 國家(예컨대 이스라엘)에 있어서 더욱 그러하다.

韓半島는 바로 두번째 範疇, 즉 強大國 사이에 포위되어 있는 國家에 속한다. 列強의 角逐場으로서의 韓半島의 歷史를 말하지 않고, 오늘날의 時点에서 분석한다 해도, 相互 敵對·競爭的 強大國에게 四圍를 포위 당한 韓半島의 地政學的 特性은 너무나 뚜렷이 浮刻된다. 6個의 核保有國中 3個國(美國·蘇聯·中共)과 1個國의 潛在核國(日本)이 한 곳에 집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곳은 世界에서 韓半島 뿐이라는 명백한 事實을 지적함으로써 충분한 것이다.

따라서 韓半島 만큼 外的 環境의 變化가 증대하고 즉각적인 影響을 주는 곳도 드물 것이다. 우리가 韓半島의 外的 環境의 變化에 대해 끊임 없는 注意를 기울이는 理由가 바로 그 때문이다.

한 민족과 國家의 興亡盛衰의 秘密을 內外的 環境으로부터의 挑戰에 대한 效果的인 応戰에서 찾을 수 있다면, 우리는 우선 그 挑戰의 性格과 方向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겠다.

本稿는 이러한 問題意識에서 韓半島에 직접적으로 깊이 관련되어 있는 強大國의 韓半島政策을 살피려고 한다. 強大國의 權力政治에 의해 相克的인 이데올로기와 体制를 지닌 두 個의 「政權」으로 분단된 戰後 韓半島는 사실 分斷의 解消(戰爭 또는 平和에 의한 統一) 또는 分斷의 固定化라는 問題들을 關聯國들에게 끊임 없이 제기시켜 왔으며, 關聯國들도 이 「골디어스의 매듭」(The Gordian Knot)이 잘못 풀리는 경우의 附隨・波及效果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가지 解答을 「제시」<sup>2)</sup>해 왔다.

이 點은 특히 1960年代 末과 70年代에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이 時機에 이르러 50年代 末부터 추구되어 온 美・蘇의 對峙가 体制化하고 美・中共 및 日・中共의 對峙가 시작됨에 따라 (특히 美・中共의 對峙에 따라), 東아시아의 情勢는 一變하고 南北韓의 軍事적 對峙狀態에도 극각적인 變化가 일었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이 過程에서 分斷國家로서의 韓半島가 對外的으로 제기한 諸問題의 解決을 위한 諸構想이 關聯國의 (특히 美國의) 公・私의 各 레벨에서 제시되고 그 一部는 이미 추진되어 오고 있다. 그 諸構想의 骨格을 單純化 시켜 말한다면, 南北韓 쌍방을 모두 하나의 「독립된 主權國家」로 인정하고 그들 사이의 關係를 「平和共存」

과 「相互不可侵」의 原則으로 규율한다는 分斷의 固定化(또는 安定化)에 있다. 이 構想의 중요한 한 局面이 바로 關聯國의 南北韓 交叉承認으로서, 分斷의 固定化 作業이 南北間에 합의되는 경우 關聯國의 南北韓 交叉承認은 자연스레 뒤따를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關聯國은 南北間의 合意를 촉진하기 위해 南北韓 交叉承認을 先行시킬 수 있다는 內容이다.

그러나 分斷의 固定化構想에 대한 北韓의 맹렬한 反撥과 이에 따른 北韓立場에 대한 中共의 「적극적」支持 및 蘇聯의 「소극적」支持는 分斷固定화와 南北交叉承認을 骨格으로 한 韓半島問題解決의 實現性与否에 일단 懷疑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中共과 蘇聯의 그러한 態度가 기본적인 性格의 것인지 또는 中·蘇紛爭에서 北韓을 意識한 잠정적인 性格의 것인지 우리의 關心의 對象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時点에서 本稿는 1960年代 末 이후 美·蘇·中·日의 政府·議會·學界·言論界에서 제시된 광범한 意味의 韓半島問題解決 方案 또는 韓半島問題觀을 정확히 파악하려는 하나의 試圖이다. 따라서 그러한 方案 또는 觀点의 批判보다는 紹介에 치중했다. 따라서 政府와 議會의 公式刊行物과 學者와 言論人의 論文등을 主要 資料로 참조했다. 그러나 특히 蘇聯의 경우 1次資料를 사용하여 蘇聯의 態度와 構想을 推定한 外國學者들의 論文에 주로 의존했다.

## 第2章 東北亞秩序의 變型 : 強大國의 對韓政策構想의 前提

韓半島 關聯強大國의 對韓政策構想을 분석하기에 앞서 그 前提로서 東北亞 國際秩序의 變型에 대해 간단히 概括하기로 한다. 왜냐하면 關聯強大國의 對韓政策은 하나의 獨立變數라기 보다는 그들의 世界政策 또는 東北亞政策에서 派生한 하나의 從屬變數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第1節 美·中共의 네탕트追求

東아시아에 있어서의 冷戰的 緊張의 緩和는 결코 이 地域에서 성취된 것은 아니다. 비록 國際政治의 場이 이 地域이라 해도, 그 起源이 東아시아 单独的인 것은 거의 없다. 따라서 이 地域에 있어서 勢力關係의 再編과 多極構造의 成立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世界政治에 있어서 勢力關係의 再編過程을 먼저 살피는 것이 順序일 것이다.

2차大戰이 끝난 1940年代 末期부터 50年代에 있어서 強大國 힘의 均衡은 美·蘇의 兩極化對決로 특징지워졌다. 이 狀況에 대한 基本적 變化가 50年代 末期부터 꾸준히 추진되어 온 美·蘇의 和解와 60年代 末期의 中·蘇對決이었다.<sup>3)</sup> 특히 中·蘇對決에 있어서, 68年8月 蘇聯이 다른 社會主義國家에 대한 內政干涉이 정당하다는 브레즈네프 독트린 (Brezhnev Doctrine)을 내걸고

바르샤바條約機構軍을 동원, 체코슬로바키아를 침공한 事件은 蘇聯에 대한 / 中共의 疑懼와 不安을 高潮시켰다. 中共 指導者들은 브레즈네프 독트린이 장차에 있을 對中侵攻을 합리화하려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특히 69年의 中·蘇 國境衝突 이후, 蘇聯이 中共과의 接境地帶에 戰略武器를 포함한 軍事力을 증강시키자, 中共의 核武器 開發·貯藏所(新疆省)에 대한 蘇聯의 先制攻擊說과 관련, 中共 指導層은 극도로 자극되었다. 4) 中共은 이에 대처, 제 9차 共產黨大會를 통해 文化革命을 공식적으로 종결지어 國內政治体制의 復旧를 도모하고 中·蘇對決의 主調를 약화시키며 새로운 對外接近을 꾀하는 한편, 蘇聯이 中共에 대해 軍事攻擊을 하지 못하도록 억제할 수 있는 새로운 勢力均衡의 關係樹立에 열중하게 되었다. 여기서 中共과의 對峙를 추구하는 美國에 응하여 蘇聯을 견제하겠다는 以夷制夷之計가 나온 것이다.

蘇聯도 東아시아와 第3世界에서 災禍論을 들어 中共의 危脅을 과장하는 한편 스스로를 유럽國家이며 아시아國家라고 선언하면서 勢力을 확장해 왔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泰國과의 關係改善과 아시아極東經濟委員會(ECAFE) 및 아시아開發銀行에 대한 적극적인 關心表明등이 그 例들이었다. 5) 특히 69年 6月 제 3차 世界共產黨大會 이후 蘇聯은 中共封鎖를 主眼으로 한 아시아集團安全保障機構(a system of collective security in Asia)의 創設을 공식제외하면서 아시아 國際政治의 게임 속에 뛰어 들었다. 6)

이와 더불어 특히 美·中共 對峙에 대한 補償이라도 求하는듯,

蘇聯은 東아시아와 南아시아 및 中東에서 中共勢를 꺾고 自身の 影響力을 증가시키기 위한 緊요한 努力을 기우려 相當한 成功을 거두었다. 71년에는 統一아랍共和國 및 印度(中共과 競争關係에 있음을 留意할 필요가 있다)와 軍事同盟이나 다른 없는 友好協力 條約을 체결하고, 反中·親蘇的인 방글라데시의 獨立을 실현시키는 한편, 72년에는 이라크(平和友好條約) 터키(通商條約) 이란 및 필리핀 등과 關係를 개선했다. 7) 이로써 蘇聯艦隊는 數世紀 동안 美·英이 거부해 온 地中海와 페르시아灣 및 印度洋에서 자유롭게 항해하면서 中共封鎖를 시도하고 있다.

이 같은 中·蘇對決의 深刻性을 인정한 美國은 이것을 對蘇交涉의 武器로 활용하였다. 美國外交政策의 가장 중요한 對象地域은 역시 蘇聯이며, 中共은 蘇聯에 비해 副次的이다. 美國은 70年代의 世界 政治에 있어서도 역시 美·蘇 兩大國의 關係가 基調를 이룰 것으로 보았다. 오직 이 超強大國만이 世界의 戰爭과 平和를 左右할 核力과 재래식 軍事力을 갖고 있는 것이다. 8)

그런데 70年代의 美·蘇關係는 過去와는 크게 달라졌다. 50年代와 60年代의 國際政治를 美·蘇의 兩頭支配體制로 설명하고 있으나, 그것은 美·蘇間의 勢力均衡 위에서가 아니라, 美國의 軍事적 優位에 대한 蘇聯의 挑戰과 이에 대한 美國의 應戰으로 전개되어 왔던 것이다.

蘇聯은 특히 美國과의 平和共存體制를 이용, 核武器의 開發과 生産에 주력하여 戰略的 軍事力에서 美國과 均衡을 이루게 되었다.

따라서 核武器의 多樣性과 運搬手段의 正確性에 있어서는 美國에 미치지 못한다. 해도 蘇聯은 彈道彈 遨擊미사일 ( ABM ) 網에서 우세할 뿐만 아니라 美國에 대한 충분한 제 2 加緊能力을 갖고 있다. 9)

이렇게 대등한 地位로 향상한 蘇聯을 상대로 世界의 主要問題를 일괄처리하려는 美國에게 中·蘇對決은 蘇聯의 「아킬레스의 臍」 ( the heel of Achilles ) 으로 보였다. 바꿔 말하면, 美國이 中共과 和解를 이룩한다면, 對美交涉에 임하는 蘇聯의 立場은 그만큼 약화되고 따라서 美國에 대해 좀 더 順應하게 될 것이라는 計算이다. 美國도 결국 中共으로써 蘇聯을 견제케 하는 以夷制夷之計를 채택한 셈인데, 蘇聯이 애초에 美·中共 데탕트를 反蘇陰謀라고 비난했던 所以가 여기에 있다. 10)

## 第 2 節 日本의 登場과 中·日復交

✓ 앞에서 筆者는 中·蘇對決과 이에 따른 中共의 登場이 東아시아에 있어서 勢力關係의 變化를 가져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러한 變化에 있어서 또 하나의 要因은 美·日關係의 變化와 이에 따른 「獨自的」 日本의 登場이다.

美·日關係가 변하게 된 要因은 물론 越南戰이었다. 美國으로 하여금 1千億달러 이상의 戰費와 40萬名線의 死傷者라는 막대한 犧牲을 치루게 한 越南戰은 어느 무엇보다도 美國의 同盟體制를 크게 약화시킨 損害를 입혔다. 美國의 전통적 盟邦인 西欧도 美國의 越南戰介入 자체를 비난했던 것이다. 11) 이와 더불어 美國

輿論도 아시아 地域紛争의 不介入으로 기울고 이른바 新孤立主義의 氣運이 높아졌다. 이러한 背景에서 69年7月 淸島에서 宣明된 닉슨 독트린 (Nixon Doctrine) 이 나왔다. 美國이 東아시아에서 的 軍事적 介入度는 점차 줄이고 거의 모든 지역적 紛争에 대한 직접적인 軍事적 介入도 피할 것이라는 이른바 義務減少 (Disengagement) 의 宣言이다. 12) 그러나 이로 인한 힘의 空白은 日本이 채워 줌으로써 中·蘇의 進出을 견제한다는 美國의 期待가 내포되어 있었다. 13)

日本은 戰後 美國의 核우산의 保護 아래 고도의 經濟成長을 유지, 오직 美·蘇에만 뒤떨어진 제 3위의 經濟大國으로 성장했다. 한 權威있는 專門家は 日本과 아시아의 모든 나라들이 현재의 比率로 經濟成長을 해나가는 경우, 70年代 中葉에는 日本의 國民總生産이 中共을 포함한 아시아 모든 나라의 그것과 거의 같은 것이라고 보고 있다. 14)

이에 따라 日本에는 新民族主義가 자라났다. 70년 5월에는 캄보디아事態에 관한 자카르타會議에 참가, 戰後 처음으로 국제적 政治會議에 참가했고 15) 10월에는 유엔史上 처음으로 日本首相이 유엔에서 연설, 日本은 70년에 『國際關係에 있어서 결정적인 새로운 고비를 넘어섰다』 16)

이처럼 성장한 日本을 美國은 그의 中·蘇에 대한 「牽制와 均衡의 競技」속에 적극 참여시키고자 했다. 물론 戰後 계속된 日本의 對美通商黑字는 美國産業界에는 하나의 「경제적 恐怖」임에는

틀림 없고, 따라서 日本의 경제적 挑戰을 약화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美國은 日本으로써 中·蘇를 견제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 17) 닉슨이 日本은 美國의 「가장 중요한 아시아의 同盟」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고 역설한 所以가 여기에 있다.

과연 美軍撤収 이후 日本이 이 地域의 힘의 空白을 메우리라는 展望은 中·蘇를 당황케 했다. 周恩來의 직접적 影響下에 中共의 指導層은 70年代에 있어서 中共에 대한 직접적인 危脅은 撤収와 減少가 확실한 美軍의 駐屯보다도 蘇聯의 군사적 壓力과 日本의 「軍國主義의 復活」일 것으로 판단, 18) 이들을 견제하기 위해 對美和解로 기울었다. 이러한 北京의 計算이 中共을 이용, 對蘇外交와 對日外交에서 行動의 機動性을 높이려는 美國의 打算과 일치, 닉슨訪中으로 劇化된 美·中共데탕트에 이른 것이다. 19)

71年 10月 압도적 多數로 유엔에서의 代表權을 획득, 台灣을 대신하여 安全保障理事會의 常任理事國이 된 데 이어 美國과의 데탕트를 이룩함으로써 外交的 高地를 차지한 中共外交의 다음 目標은 日本과의 復交였다. 日本과의 復交에 대한 中共의 立場은 대체로 다음과 같았다. 20)

첫째, 中共은 中·日復交에 앞서 反中共의 性格의 日·蘇和解가 이뤄질 것을 염려, 機先을 제압할 必要性을 절감했다. 특히 66年 日·蘇外相의 交換訪問 이후 蘇聯은 反蘇的 中·日和解를 경계, 시베리아共同開發을 비롯하여 協力이 가능한 分野들을 미끼로 對日接近을

시도해 온 터였다. 中共은 日・蘇間에 反中共的 「神聖同盟」의 成立이 음모되고 있다고 비난, 이를 견제했었다.

둘째, 中共은 台灣과의 斷交를 전제로 한 日本과의 復交는 특히 아시아에 있어서 中共의 威信을 높이는 데 큰 影響力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 地域에서 日本이 갖고 있는 影響力도 막강하려니와 日本은 台灣과 밀접한 關係를 가진 極少數의 國家中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세째 中共은 日本과의 復交를 통해 日本의 「軍國主義化」를 제어하고 美國의 影響力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다고 믿어 왔다. 日本에는 이른바 平和主義勢力(左翼野黨・知識人・主要매스미디어從事者等)이 있는 만큼 中・日復交는 中共으로 하여금 이러한 勢力과의 合作을 쉽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 이들이 주창하는 日本의 非武裝中立이라는 方向으로 日本을 유도할 수 있다면 中共의 安全이란 面에서 더 바랄 것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中共은 組織보다도 思想을 重視하는 毛沢東의 發展觀에도 불구하고 民生의 安定과 國內結束을 위해 상당한 水準의 經濟發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대규모의 經濟 및 技術援助를 日本에서 求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여기에 대한 日本의 立場으로서 다음과 같은 考慮들이 지적될 수 있다. 21)

첫째 日本人 사이에는 아직도 전통적인 日・露間의 反目과 疑心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蘇聯과 平和條約을 체결하지 못하고 蘇

聯占領下の 이른바 「北方領土」 4 島를 「회복」하지 못한 點은 蘇聯에 대한 日本人의 疑心을 강화시켰다. 72년 5월 그로미코外相의 訪日을 契機로 한 日・蘇關係의 改善을 위한 다양한 제스처에 대해 日本人이 크게 매료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22)

日本은 中共과의 復交를 蘇聯과의 關係改善에 先行시켜 對蘇外交의 高地를 차지하려고 하였다.

둘째 日本人들은 國際政治에 있어서 日本의 좀더 자주적인 外交를 바랐으며 中・日復交는 日本自主外交의 象徴으로 인식되었었다. 日本이 실질적으로 배제된 채 이뤄진 美・中共 대탕트의 衝擊 (= Nixon shock)은 中・日復交에 대한 熱望을 높였다. 특히 中・日復交를 요구하는 野黨 및 自民黨 一部로부터의 壓力과 美・日安保體制에 대한 國內反撥의 增加는 日本政府로 하여금 對中共 대탕트의 必要性을 절감케 했다.

세계 닉슨 독트린에 의해 美國이 中共封鎖를 위한 東아시아에 있어서의 軍事線을 해제한 事實은 日本의 전체 輸出市場의 3 割이 넘는 東南亞市場의 保護解除라는 結果를 가져 왔다. 23)

네째 人口 8 億의 中共이 日本에게 막연히 십어준 「광대한 市場」으로서의 이미지이다. 특히 日本의 資本 및 技術과 中共의 저렴한 勞動力의 結合이 가져 올 경제적 結果에 대해 그 實現性 與否에 불구하고 日本人은 큰 期待感을 갖고 있었다. 24)

이에 다나카(田中角榮)는 首相에 선출된 2 個月 뒤인 72년 9월 北京을 방문 兩國間의 戰爭狀態를 종결하고 (台灣과 斷交하면

서) 外交關係를 회복했다. 2) 兩國은 현재 平和條約締結을 위한 協商을 벌이고 있다. 「霸權條項」을 둘러싸고 膠着狀態이나, 결국 日·中平和條約이 체결된다면 東北亞의 平和構造에 상당한 寄与를 할 것이다.

### 第3節 蘇聯의 対応: 美·蘇대탕트의 進展과 日本에의 接近

美·中共 대탕트와 中·日復交로 샌프란시스코體制라고도 불리는 亞細亞·太平洋地域의 基本秩序와 安保體制가 변질된 事實은, 비록 예견되었던 것이라 해도 蘇聯에게 커다란 衝激이 아닐 수 없다. 이 일련의 變化에 대한 蘇聯의 反應은 앞에서 부분적으로 論議된 바 있다. 그러나 重複의 危險性에도 불구하고 蘇聯의 対応에 대해 몇가지 觀察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蘇聯은 中·蘇對決이 심각해지면서 東·西獨分斷의 固定化를 통한 유럽의 安定으로 이 地域에 있어서 後顧를 던 뒤 中共封鎖에, 전념코자 하였다. 對中共關係는 위에서 설명한 바 있거니와, 무엇보다 中共의 核國家로의 登場은 蘇聯의 世界戰略을 再考케 하였다.

물론 오늘날 中共과 核能力의 水準은 1950年代 蘇聯 核能力의 水準에 불과하여 미사일 뿐만 아니라 發進施設도 상당히 원시적임에 틀림 없다. 한 權威있는 專門家에 의하면 비록 發進된다 해도 蘇聯의 초보적인 彈道미사일防禦(BMD)網을 결코 꿰뚫을 수 없는 水準이다. 26)

그러나 이처럼 中共의 核能力이 軍事적으로는 「무시해도 좋을

정도 ] (negligible) 라고 해도 『그것이 정치적·문화적·역사적  
 要因들과 併置될 때 「무서운 것」(formidable)으로 나타난다』<sup>27)</sup>  
 따라서 蘇聯의 核戰略이 東(中共)·西(西歐)로 나뉘는 딜레마를  
 해결함에 있어서 美國과 西歐를 포함한 西方陣營의 協調가 緊要하  
 다는 것을 蘇聯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西方과의 協調는 물론  
 中共에 대한 考慮 밖에도 蘇聯에게 軍備縮少를 통한 國內 政治·  
 經濟의 安定을 위해 바람직하다. 여기에 蘇聯이 국제적인 緊張緩和  
 and를 통해 國際關係에 있어서 새로운 轉機를 이룩하려는 所以가  
 있다. <sup>28)</sup>

美·中共 데탕트는 확실히 蘇聯으로 하여금 美·蘇를 중심한 국  
 제적 緊張緩和에 보다 능동적인 (또는 적극적인) 姿勢를 취하도  
 록 재촉시켰다. <sup>29)</sup> 美·中共首腦會談 이후 2년未滿에 美·蘇頂上  
 會談이 4차에 걸쳐 개최되었으며 이를 통해 美·蘇 데탕트는 비  
 록 본질적인 意味에 있어서는 進展이 더디었다 해도 상징적인 意  
 味에 있어서는 상당한 進展을 가져 왔다. 72년 5월의 제1차  
 美·蘇頂上會談에서는 제1단계 戰略核武器制限協定(SALT I)이 있었  
 고 73년 6월의 제2차 頂上會談에서는 核戰爭危險減縮宣言이 있었  
 으며, 74년 3월의 제3차 頂上會談에서는 地下核實驗規模縮小와 防  
 禦用미사일網凍結에 관한 協定이 있었으며, 74년 11월의 제4차 頂  
 上會談에서는 제2단계 戰略核武器制限協定(SALT II)이 체결되었다 <sup>30)</sup>

蘇聯은 美國과의 데탕트를 촉진시키는 한편 日·中共 데탕트에  
 대처하여 日本에게 柔軟政策을 취해 오고 있다. 日·中共데탕트로

인하여 中共의 勞動力이 日本의 資本과 제휴, 中共의 工業化를 추진할 수도 있다는 展望과 反蘇的 日・中共同盟 또는 日・美・中共同盟의 出現可能性에 대한 疑懼는 蘇聯의 對日接近을 재촉하고 있다. 이에 蘇聯은 시베리아共同開發 (특히 Tyumen Project),<sup>31)</sup> 「北方領土」에 관한 妥協可能性, 北海에 있어서 日本의 漁撈權保障, 日本에게 유리한 條件下에서의 平和條約締結등을 내세워 日本을 유도하고 있다. 닉슨의 北京訪問이 발표된 71년 여름 이후 東北亞問題에 관한 蘇聯新聞의 主要테마가 日・蘇關係改善이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sup>32)</sup>

### 第3章 四強의 對韓政策 (또는 韓半島觀)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美·蘇·中共·日등 東아시아 國際政治의 「場」에 있어서 4個의 主行爲者 사이의 關係에는 中대한 變化가 일어났다. 이것을 東아시아에 있어서 「四強體制」의 登場 또는 「四極構造」의 形成으로 불러 왔다. 여러 論者들이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이 地域에 있어서 多極構造와 테탕트體制는 아직도 正當한 定義를 결여하고 있다. 또 美·中共과 日·中共關係에는 급작스런 和解 (Entente)가 있을 수 없고 실질적 意味에 있어서 緊張緩和 (Detente)도 없다고 보는 見解도 있다.<sup>33)</sup> 한편 石油 危機의 衝擊에서 히우적거리는데 日本이, 과연 「四極構造」의 한 「極」으로써의 役割을 담당할 수 있겠느냐는 反論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한가지 確실한 것은 冷戰的 同盟體制가 점차적으로 分해되고 있으며 이 地域의 主行爲者들이 相互 「均衡과 牽制의 競技」속에서 現狀認定과 緊張緩和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 만은 確실하다.

強大國間의 現狀認定과 緊張緩和라는 變化의 衝擊이 가장 크게 작용해 온 곳이 韓半島였음은 이미 지적한 바 있다. 되풀이 하거나, 이 地域의 周邊國家中에서 中·蘇와 직접 接境하고 있고 日本과는 一衣帶水로 近接해 있는 곳은 韓半島 밖에 없다. 이 地政學的 要因 밖에도 冷戰體制에 의해 4半世紀 이상 敵對的 分斷이 지속되어 왔고, 分斷된 한 쪽 (北韓)은 中·蘇와 각각 軍事同盟을 맺고 다른 한 쪽 (南韓)은 美國과 相互防衛條約을 갖고 있으며 日本과는

基本關係條約을 갖고 있다는 特殊性이 있다. 따라서 韓半島는 獨逸 및 베트남과 더불어 國際冷戰이 內政의 구조적 分裂로 나타난 대표적인 地域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國際體制의 出現이 東아시아의 어느 나라보다도 韓半島에 가장 큰 衝擊을 가져 왔다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러한 視角에서, 즉 四強의 國際秩序觀 또는 基本戰略이라는 틀 안에서 韓半島問題를 評價하는 視角에서, 34) 本稿의 主題를 다루려고 한다.

#### 才1節 七十年代 美國의 對韓政策

##### 1. 變化의 端緒: 「平和協定」體制에의 指向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첫째 닉슨 독트린으로 나타난 美國의 아시아에 있어서 군사적 介入의 變化와, 둘째 中共의 유엔代表權 獲得은 韓半島의 基本秩序에 커다란 衝擊을 주었다. 여기서 韓半島의 基本秩序라고 할 때, 그것은 韓國體戰協定이 규정한 南北軍事分界線 非武裝地帶라는 南北分割線을 중심하여 現狀維持되어 왔던 이른바 動亂體制를 의미한다. 35) 그런데 위에 지적한 두 要因은 바로 이 動亂體制의 崩壞를 결정적으로 제촉하게 되었다.

韓半島의 分斷이라는 現狀을 維持해 온 기둥은 두 말할 것 없이 美軍과 유엔이었다. 그러나 美國 힘이 減小라는 前提 위에서 美·中共 데탕트가 이뤄지자 動亂을 실질적으로 형성했던 韓半島에서의 美·中共間의 군사적 對峙에도 직접적 影響을 주었다. 동시

에 71年 제 26차 유엔總회에서 台灣을 대신한 中共의 유엔代表權 獲得과 安保理 着席은 中共을 「侵略者」로 규정했던 51年 2月の 유엔決議를 사실상 (de facto) 失効시킴으로써 韓半島에 있어서 군사적 對峙의 정치적 合理性을 해소시킨 結果를 가져 왔다. 따라서 中共을 「侵略者」로 규정하고 설정된 韓半島의 基本秩序가 中共도 수락할 수 있는 새로운 秩序로 변경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그 「새로운 秩序」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解答은 四強마다 다를 것이다. 여기서는 우선 美國을 中心으로 살펴본다.

닉슨독트린의 出現과 비슷한 時機에 韓半島問題에 대한 새로운 構想이 어느정도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은 아마 스칼라피노教授의 論文이 처음일 것이다. 美國의 아시아政策 樹立過程에 참여하는 스칼라피노는 70年代 美國의 아시아政策을 전망하는 그의 論文에서 韓半島를 포함한 分斷國家問題에 대해 새로운 接近方法을 취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는 分斷國家라는 用語 자체가 冷戰의 產物인 만큼 사용하지 말 것을 주장하면서, 분단된 쌍방을 모두 하나의 「독립된 主權國家」로 인정하고 그들 사이를 「平和共存」과 「相互不可侵」으로 규율할 것을 주장했다. 36) 그는 분단된 쌍방이 평화적 方法에 의해 統一을 달성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인정하였으나, 分斷國家의 統一보다는 분단된 쌍방의 平和共存을 더 강조한 것은 역시 그가 이 地域에 있어서 現狀認定과 平和共存을

통한 緊張緩和에 政策의 優先順位를 둔 때문일 것이다.

스칼라피노의 見解는 닉슨政府의 見解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70年2月 당시 駐韓美國大使 윌리엄 포터는 美國上院 外交委員會에서의 한 聽聞會에서 美國政府가 南北韓間의 對話可能性을 타진하고 있으며 이 方法에 의해 韓半島에 있어서 緊張緩和를 모색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37) 이 聽聞會에서 플브라이트委員長은 東西獨의 前例를 南北韓에 적용할 것을 行政府에 중용했고, 이에 대해 포터大使와 國務省官吏들도 이에 동조하는 見解를 표명했다. 그 뒤 美官團으로부터 비슷한 內容의 提案이 잇달았다. 南北韓이 직접 對話할 수 있도록 休戰會談 유엔軍側 首席代表職을 韓國人으로 임명하자는 당시 休戰會談首席代表 로저스中將의 發言 38) 및 非武裝地帶의 평화적 利用案을 비롯한 유엔軍側의 韓半島 緊張緩和 5 個案 (1971年)과 南北韓 同時유엔加入을 제안한 로저委員會報告書 (1971年) 39) 및 北韓과의 關係改善用意를 표명한 로저스國務長官의 記者會見 (1972年) 40) 등이 그 例들이다.

닉슨行政府는 對韓政策의 變更을 強力히 시사하면서 駐韓美軍의 단계적 撤収를 단행했다. 美國의 중래의 對韓政策이 美國의 對中共 封鎖政策의 一環으로 형성되었던 만큼 닉슨行政府의 對中共政策이 변경되면서 對韓政策이 변경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못된다.

中共도 수락할 수 있는 새로운 韓半島秩序에 대한 美國의 (또는 中共의) 構想이 좀 더 뚜렷이 나타난 것이 닉슨訪中에 따른 닉슨·周恩來의 上海共同聲明이다. 41) 물론 쌍방은 韓國問題에 관

해 최종 합의를 보지 못하고 각자 自己側의 立場을 申明하는데 그쳤으나, 몇가지 問題에 대해서는 최소한 양해하고 있음을 感知할 수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韓國問題를 유엔에 의해서가 아니라 韓國人 스스로에 의해 해결해야 한다는 韓半島의 유엔의 性格의 除去이며 따라서 일차적으로 언커크(유엔韓國統一復興委員團)는 해체되어야 한다는 점이였다. 이에 따라 과연 제 28 차 유엔總會(73年)는 大韓民國 政府와 유엔을 연결시켜 온 태(胎)줄인 언커크를 해체했던 것이다.

韓半島의 유엔의 性格의 除去와 관련된 두번째의 作業이 駐韓유엔軍司令部의 地位變更(解体를 포함한) 問題이다. 駐韓유엔軍司令部의 解体問題는 유엔軍司令官이 조인한 韓國休戰協定의 地位와 분리할 수 없다. 즉 아직까지 그래도 韓半島 分斷의 安定을 유지시켜 온 韓國休戰協定의 効力存続의 問題가 제기된다. 42)

이 問題에 관해 中共의 周恩来首相은 71年 8月 뉴욕 타임즈의 레스틴과의 會見에서 現行 休戰協定을 「平和協定」으로 대체할 것을 제의한 바 있다(이 部分은 中共編에서 詳述하기로 한다). 이에 대해 美國政府는 긍정적인 反應을 보여 옴으로써 美國이 南北關係를 「平和協定」의 (體制로 전환·안정시키는데 積極적 關心을 갖고 있음을 표시했다. 43) 사실 休戰協定은 그 前文과 제 62 條에 「군사적 解決」은 장차 있을 「정치적 解決」에 의해 대처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었다.

이와 동시에 美國은 北韓을 비롯한 그의 支持者들의 유엔軍司解

体要求에 대해 「自進解体」의 政策構想을 발표, 우리의 注目を 끌었다. 74年8月 美國兩院을 통과한 下院歲出委員會의 駐韓유엔軍司·駐韓美軍司·美8軍司의 統合案이 바로 그것이다. 이 案은 세 司令部를 하나의 독립된 새로운 「駐韓美軍司令部」로 통합하고 현재 (休戰線 근방에 배치되어 있는 美軍 才2步兵師團을 서울 南쪽으로 이동하는 한편 韓國內의 美對空砲部隊와 제4誘導彈部隊를 해체 내지 韓國軍에 일부 이양하도록 行政府에 정식으로 건의하고 있다. 44) 이 建議案의 核心은 말할 것도 없이 유엔總회에서 韓國問題討議의 焦點이 될 駐韓유엔軍司의 現狀變更 問題를 의식하면서 그의 代案으로서 駐韓美軍司설치, 美軍의 직접적인 武力紛争介入 迴避를 위한 紛争可能地点으로부터의 隔離, 아시아·太平洋地域에서의 美軍의 再配置와 指揮體系의 改編을 통한 機動性強化와 經費節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建議案에서 언급된 美國問題는 後述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유엔軍司問題에 국한하여 간단히 살펴 보자. 제29차 유엔總會(74年)에서 美國支持國들과 더불어 유엔軍司를 해체하도록 安保理가 연구하라는 決議案을 통과시켰다. (유엔軍司解체를 요구하는 北韓側 決議案도 48對48의 贊反同數를 얻었다). 즉 方法이 問題일 뿐, 유엔軍司解체는 原則決定이 내려진 것이다. 이에 뒤따라 제30차 유엔總會(75年)를 앞두고 75年6月27日 美國은 「休戰協定이 계속 有効하다고 關係當事國들이 동의한다면 76年1月1日자로 유엔軍司를 해체한다」는 內容의 韓國側 決議案을 유엔事務局에

에 제출했다. 이 決議案은 유엔軍司의 解体와 함께 현재 유엔軍司의 責任으로 되어 있는 休戰協定の 履行을 보장할 後繼司令官으로 美國軍 및 韓國軍將校를 임명할 用意가 있으며 休戰協定当事者들과 또 희망하는 安理事國들과도 쌍방이 합의하는 時間과 場所에서 이 問題를 협상할 用意가 있음을 천명했다. 45)

이것은 결국 韓半島의 유엔의 性格의 除去 → 韓國問題의 韓國問題化 → 南北對話 → 「坪和協定」체제의 指向이라는 美國의 基本적 構想이 狀況論理에 柔軟히 적응하면서 現實化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 II. 美國의 對韓政策의 展望 : 美軍의 駐韓問題를 中心으로

前項에서 우리는 美國의 韓半島政策의 基本적 構想이 現實적으로 전개되어 나온 過程을, 특히 韓半島의 基本秩序인 動亂体制의 한 기둥 (Pillar) 인 유엔의 性格이 제거되어 가는 側面에 力點을 두어 살펴 보았다. 이로써 動亂体制의 또 하나의 기둥인 美軍의 駐韓問題가 南北對話에 있어서 또는 四強의 韓國問題處理에 있어서 論議의 焦點이 되게 되었다. 46) 따라서 本項에서는 주로 이 美軍의 駐韓問題를 中心으로 美國의 對韓政策論議를 살펴 보기로 한다.

### (가) 韓半島中立화와 美軍의 撤収案

韓半島를 強大國의 緩衝地帶 (buffer-zone) 化 또는 中立化 (neutralization) 하려는 構想의 始源은 朝鮮王朝 末葉으로까지 소급할 수 있으며, 특히 戰後 國內外人士들에 의해 간헐적으로

제시되었었다. 그런데 이러한構想이 비록 支配的인 것은 아니지만 70年代 美國의 對韓政策論議에서 表출되고 있다. 이러한 論議의 基底에 東아시아에 있어서 「四極構造」의 出現이 韓半島의 緩衝地帶化나 中立化를 용이하게 하고 있다는 낙관적 見解 또는 「四極構造」의 安定性을 提高시키기 위해 四強이 깊이 관련되고 고도로 軍事化되어 있는 韓半島를 緩衝地帶化나 中立化해야 한다는 見解가 갈려 있음을 쉽게 간취할 수 있다.

韓半島中立化案이 美國 政府內에서 論議돼 온 事實이 처음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은 71年 6月 美下院外交委員會 極東小委員會가 개최한 聽聞會에서이다. 이 聽聞會에서 포터大使는 「때때로 韓半島의 緊張緩和의 可能性과 韓半島의 中立化에 관한 論議가 있어 왔다」고 증언했다. 47) 韓半島中立化에 관한 포터 大使의 言及은 이것이 全部여서 그 구체적 內容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은 韓半島의 「非軍事化」(Non-militarization) 또는 全外軍撤収(Disengagement)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 되었다. 즉 韓半島에서 核을 포함한 全外軍을 撤수시킬 뿐만 아니라 장차 어느 外軍의 介入도 허용하지 않을 것과 南北韓의 自体兵力도 削減하여, 南北韓을 실질적으로 非核·非軍事化한다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48)

韓半島를 非核地帶化 또는 非軍事化함이 바람직하다는 主張은 73年 1月에 출판된 브루킹스研究所의 한 政策報告書에서도 지적되고 있다. 이 報告書는 美·中共間의 실질적 對峙를 위해 東北亞에

있어서 核武器를 포함한 武器統制 ( armscontrol ) 의 必要性을 역설하고 이러한 「지역적 武器統制」가 韓半島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49)

韓半島 中立化案을 맨스필드上院民主党院内總務, 헨더슨教授, 해리슨記者에 의해서도 論議되었다. 1960年10月에도 韓半島에 대한 오스트리아式 中立化案을 제기한 바 있는 맨스필드는 韓半島를 포함한 東아시아의 諸問題들이 紛争의 當事國 뿐만 아니라 四強의 參與와 合意없이 解決이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四強이 西太平洋地域의 여러 나라들의 支持를 基盤으로 西太平洋의 「四強國그룹」 ( a Quadripartite group ) 을 결성하여 相互不可侵條約·相互合意에 의한 군사적 撤収·아시아水域에서의 海軍力의 制限·아시아에서의 核實驗과 核擴張制限등과 같은 構想에 관해 검토할 것을 제의했다. 그는 이것은 또한 「中立화된 東南亞」 ( a neutralized Southeast Asia ) 와 「中立화된 韓國」 ( a neutralized Korea ) 를 위한 提案에 대해 공동의 反應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보았다. 50)

헨더슨의 中立化發想의 起源도 오스트리아에 있다. 그는 南北韓에 대한 關聯強大國의 군사적 支援 ( 兵力의 駐屯 및 武器의 (供給) 을 서서히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오스트리아式 모델에 따라 四強의 保障아래 韓半島를 中立化統一할 것 ( a four-power guarantee-closely along the Austrian model -of the unity, neutrality, and independence of the Korean Peninsula ) 을 주장했다. 51)

해리슨의 韓半島中立化構想은 韓半島에 대한 四強의 일종의 「消極政策」 (Negative policy) 을 의미한다. 그는 南北對話가 결실되기 위해, 우선 南北對決이 「생각」돼야 하며, 이를 유도하기 위해 美國은 駐韓美軍을 철수하고, 이에 따라 韓國問題로부터 四強의 「더 큰 分離」 (greater detachment) 를 촉진할 것을 제의했다. 이 과정에서 美·中·蘇는 모두 南北韓에 대한 各自의 軍事條約을 약화하고, 四強이 南北韓에 대해 「對稱的 關係」 (symmetrical relationships) 를 수립할 것을 주장했다. 이러한 政策은 결국 南北韓에게 統一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주게 되며 四強의 공식적 條約 없이 韓半島의 事實上의 中立化 (a de facto neutralization of the Peninsula) 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았다. 52)

이들의 主張들은 四強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合意를 전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四強이 이러한 合意에 도달할 展望이 현재로서는 밝지 않고, 설령 合意가 이룩된다 해도 南北韓 쌍방으로부터 맹렬한 反對에 부딪칠 것이다. 53)

#### (나) 韓半島의 戰略的 價值輕視와 美軍撤収案

美國의 對韓政策論議의 두번째 範疇는 아시아에 있어서 美國의 安全을 위해 韓半島가 지니는 전략적 價值가 낮으며 따라서 駐韓美軍을 철수시켜야 한다는 主張이다. 韓半島 中立化論議와 마찬가지로 韓半島의 戰略적 價值에 대한 論議도 40年代 末期로 급할 수 있다. 47年 美軍部가 韓國은 東아시아에 있어서 美

國의 安全에 대한 전략적 價値가 낮다고 평가, 駐韓美軍의 撤収를  
건의했고 이를 트루먼 行政府가 實踐에 옮겼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70年代에 있어서 韓國의 전략적 價値를 낮게 평가하는 論者들은  
均衡과 牽制의 競技를 屬性으로 하는 「四極構造」의 安定性을 강  
조한다. 오늘날 전개되고 있는 東西의 緊張緩和가 본질적으로 安  
定性을 갖고 있고 또 상당히 持久的 일 것이라고 판단하는 이들  
은 「蘇聯과 中共이 모두 美國과 밀접하고 우호적인 關係를 유지  
하려는 장기적 政策을 보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54) 따라서 이  
地域에 있어서 美國의 安保는 美·日安保關係의 基礎 위에서 유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같은 論題에서 韓國의 安保가 日本의 安保에 重要하다는  
전통적인 解釋을 받아 들이지 않는다. 日本에 대한 外部로 부터의  
攻擄에 대해서는 美國의 核우산이 必要·充分한 要素이며 日本 内部  
의 動擾와 叛亂行爲에 대해서는 日本自衛隊 및 警察力으로 충분히  
저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같은 論題에서 中·蘇가 北韓의 대규모적인 對南攻擄을 위  
해 요구할 支援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美  
軍의 단계적 韓國撤収가 武力攻擄의 可能性을 증대시킬 것으로 생각  
하는 理由」를 발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또한 北韓의 軍事力에 대한 南韓의 「優勢」 (a signi  
ficant edge) 를 강조한다. 55) 따라서 北韓의 對南武力攻擄을 南韓  
은 美地上軍의 存在 없이 (또는、美空軍力의 支援만으로) 충분히 격

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56)

(다) 美軍의 機動軍化와 遠隔沮止力概念

美國의 對韓政策論議의 세번째 範疇는 애브라모위츠博士의 遠隔沮止 ( remote U.S. deterrence ) 概念이다. 그는 『韓國에 있어서 平和와 安定을 유지하기 위한 構造는 변화하고 있으나 두 韓國 사이의 첨예한 對決이나 두드러진 敵對에는 變化가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는 결국 ~~韓國~~ 自身の 힘이 北韓의 對南攻擧에 대한 基本적 抑止力 ( the prime deterrent ) 이 되어야 할 時代로 옮겨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 時代로의 轉換은 駐韓美軍의 兵力을 감축·철수하는 제1段階와 근본적으로 美軍의 遠隔抑止 ] ( essentially remote U.S. deterrence ) 期인 제2段階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제의하고 있다. 57)

그는 駐韓美軍의 撤收問題를 美國의 對共協商의 「主要카드」 ( the major card ) 라고 부르면서 「東北亞細亞安保會議」 ( a Conference on North-East Asian Security ) 58) 와 같은 國際會議에서 南北問題全般과 함께 다룰 것을 주장했다. 그의 構想은 南北間의 戰爭防止를 위해 軍事적 手段과 外交的 努力을 병행하자는 데 있는 것이다.

제2段階의 核心은 결국 美軍의 機動軍 ( mobile force ) 化로서 이것은 駐韓美軍을 점차적으로 全亞細亞 機動予備軍으로 전환시켜 궁극적으로는 關島나 화와이 또는 西太平洋의 其他地域에 재배치시키는 構想 ( 74년 8월 報道 ) 으로 연결된 것 같다. 이것은 駐韓

美軍을 「駐韓」美軍이 아닌 遠隔抑止力으로 性格轉換시키려는 構想  
임이 확실하다.

여기서 한가지 지적해야 할 것은 애브라모위츠가 美軍이 철수한  
뒤 (또는 遠隔抑止力으로 남고) 「南韓 自身の 힘이北韓의 對南  
攻擧에 대한 기본적 抑止力이 되어야 할 時代」로의 轉換을 말할  
때 그는 「南韓 自身の 힘」이 日本의 某種의 介入保證 (Some  
sort of commitment from Japan) 에 의해 뒷받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59) 이 構想은 앞서 지적한 駐韓유엔軍司令部  
에 관한 美兩院建議書에서도 다시 떠오르고 있다. 이 建議書는  
가까운 將來에 日本의 再武裝이 있음을 암시하고 日本을 통한 美  
國의 군사적 役割의 代行者를 시사하면서 궁극적으로 美軍의 韓國으  
로부터의 完全 撤収의 길을 터 놓고 있다. 60)

#### (라) 강력한 抑制的 姿勢의 堅持論

美國의 對韓政策論議의 四번째 範疇은 韓國에 비록 小規模라  
도 抑制姿勢 (deterrent posture) 를 보이고 따라서北韓의 對南  
武力挑擧可能性을 抑制하자는 主張이다.

물론 韓國에 대한 美國의 점진적 撤収政策을 옹호했던 人士中에  
도 美國의 기본적 目標가 「四強의 利益이 收斂되어 있는 北太平  
洋地域에서의 平衡을 되찾을」 韓半島에서의 戰爭의 回避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했었다. 61) 그런데 75년 4·5월의 印支  
事態의 쇼크로 韓半島에 있어서의 강력한 抑制力姿勢堅持論이 우세  
해 졌다.

이러한 主張의 대표적 例로 우선 75년 2월 12일에 발표된 美國 防長官 슬레진저의 議會報告書에서 明文化된 拠点 (Strong points) 論이다. <sup>62)</sup> 筆者는 앞에서 닉슨 독트린이 「美軍의 自動介入에서 選擇的 介入으로의 轉換」의 側面을 갖고 있음을 지적했었다. 슬레진저의 拠点論이 바로 이 「選擇的 介入」을 위한 「拠点」의 確保를 의미한다. 바꿔 말하여 슬레진저는 對蘇核抑制를 위한 강력한 核攻擊能力을 主軸으로 하고 여기에 在來式 戰鬪를 위한 강력한 地点의 維持를 追加하여 이른바 「1과 2분의 1 戰爭」 (one and half war) 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고 하고 있다.

슬레진저가 택한 拠点は ① 西獨을 中心으로 한 北大西洋條約 機構 (NATO) 地區 ② 韓國 ③ 디에고 가르시아등이 中心이 된 印度洋의 새 拠点인 반 그가 韓國을 戰略拠点으로 택한 理由로 다음의 要因들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 四強 利益의 交叉地域이라는 地利로 韓國은 東北亞地域에 있어서 勢力均衡의 維持者로서의 役割을 할 수 있다.

둘째 東北亞에 주둔하고 있는 蘇聯軍의 유럽 移動을 방지할 수 있다.

셋째 日本防衛에 대한 疑懼心을 덜어줌으로써 日本의 核志向을 방지할 수 있다.

넷째 美軍駐屯에 대한 韓國政府와 國民의 우호적인 反應이다.

슬레진저는 東아시아에 있어서 美軍의 拠点は 韓國과 오키나와에 있는 支援部隊이며 이 支援部隊은 余他の 아시아國家로부터의 「탈

險]의 抑制을 위해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 특히 北韓의 對南 「冒險主義」를 경고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美國의 韓半島重視政策이 北韓의 對南「冒險主義」에 自制를 가져올 것인지의 與否는 韓國의 國內情勢에 많이 달려 있다고 지적함으로써 美國의 對韓支援政策의 限界를 뚜렷이 했다. 63)

술레진저國防報告書만큼 강력한 表現을 쓰고 있지는 않지만 韓半島를 四強의 勢力均衡維持를 위한 均衡子 (balancer)로서 또는 東北亞地域에 있어서 美國의 安保에 긴요한 地域으로서 重視하는 見解로서 75년 2월 출판된 브루킹스研究所의 報告書가 있다. 이 報告書는 우선 東아시아에 있어서 美國의 安保와 「本원적」 (intrinsic)으로 중요한 利益 (즉 intrinsic interests)을 갖고 있는 나라로 1차적으로 (the chief focus) 日本을 지적하고 2차적으로 (a secondary focus) 濠洲를 지적하고 韓國을 포함한 어떠한 開發途上國家도 美國이 「本원적 利益」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韓國은 美國이 「本원적 利益」을 갖고 있는 日本의 防衛와 安全을 위해 緊요한 國家이므로 (이처럼 美國이 제 3國에 대해 갖고 있는 중요한 利益 때문에 어느 特定國家와의 關係를 重視하는 경우 그것을 「誘導된 利益」= derived interests이라고 부르고 있다), 따라서 이 地域의 開發途上國家中에서 美國의 利益이 가장 重要하게 걸려 있는 國家로 韓國을 지적하고 있다. 64)

이러한 視角에서 이 報告書는 「美國의 일방적 디스인게이즈먼트」

( a unilateral U.S. disengagement ) 의 危險性을 경고하고 있다. 이 報告書는 四強이 모두 깊이 관련되어 있는 韓半島에서 美國만이 디스인게이지먼트의 길을 걷는 경우 발생할 다음의 두가지 危險性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 日本은 自体防衛에 대한 疑懼心 때문에 核武裝의 길을 택할 것이며<sup>65)</sup> 이것은 強大國間的 軍備競争을 자초 緊張緩和의 傾向을 逆轉시킬 것이라는 危險性이다.

둘째 그러나 가장 큰 危險 ( the greatest danger ) 은 美國의 일방적 디스인게이지먼트가 北韓의 對南挑發을 유도할 것이며 이에 따른 제 2의 韓國戰爭은 특히 北韓이 승리하는 경우 日本의 再武裝을 가져오고 美·日同盟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點이다. <sup>66)</sup>

따라서 韓國에 있어서 美國의 계속적 介入은 東아시아에 있어서 四強의 안정된 平衡을 유지하는 政策에<sup>이</sup> 중요하다고 이 報告書는 결론 짓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 報告書는 이 結論이 美軍의 無한한 駐屯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못박고 있다. <sup>67)</sup>

이 밖에도 특히 印支事態 이후 「美軍 駐韓의 必要性을 역설하는 主張들이 미국 朝野에서 統出하고 있다. <sup>68)</sup> 여기서 그 主張들의 論擲과 그러한 主張들이 統出하는 背景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다만 지적할 것은 역시 日本에 대한 考慮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點이다. 印支事態 그 自体와 印支事態에 따른 「韓半島戰爭危機論」은 日本의 輿論을 크게 자극했으며 再武裝論을 공공연히 표출시킨 結果를 가져 왔다. 이에 미국은 對韓公約의 遵守를 다짐함으로써 우선 日本人에게 간접적으로 미국의 對外公約의

信賴度를 보증하고 韓半島事態에 대한 不安과 疑懼를 무마시키려고 시도한 것 같다.

#### (마) 四強의 南北交叉承認 및 四強協定案

筆者는 아직까지 미국의 對韓政策論議를 주로 美軍의 駐韓問題를 中心으로 즉 軍事전략적 側面에서 다뤘다. 마지막으로 外交的 側面 즉 美軍의 駐韓問題를 포함한 일체의 南北韓問題를 四強의 南北交叉承認 또는 四強協定에 의해 해결하려는 (또는 解決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對韓構想을 다루보기로 한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미국은 원래 南北對話를 통해 南北分斷을 「合法化」하고 「平和協定」體制化하여 四強이 이를 자연스레 승인함으로써 韓半島問題의 安定化를 추구했었던 것 같다. 이 構想의 底辺에는 北韓에 대한 「認識의 錯誤」가 있었음을 우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60年代 南北間의 직접적 對話를 주장한 論者들은 北韓이 국제사회에 있어서 大韓民國과 동등한 地位를 추구하고 있으며 그를 위해 「2個의 韓國」을 오히려 希望하고 있다고 추정하는 傾向이 우세했다. 따라서 四強의 交叉承認 또는 南北韓의 유엔同時加入을 北韓이 「不敢請・固所願」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北韓은 오히려 이를 거부하고 나섰다. 그와 동시에 사실상 內心으로는 「2個의 韓國」觀을 가졌으리라고 정당히 생각되는 中・蘇가 이 方向으로 움직이는 것을 저지하고 더 나아가 「韓半島의 唯一・合法政府」라는 論理로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2개의 한국에 대한 南北韓의 合意가 先行되고 이를 국제적으로 보장하는 유엔同時加入과 四強의 交叉承認이 後行한다는 원래의 構想은 일단 <sup>적</sup>坐한 셈이다. 여기서 미국은 四強의 交叉承認을 先行시켜 국제적으로 南北分斷의 合法化를 大勢化하고 이 氣運을 內燃化 南北間의 合意를 「強要」하는 手順이 變更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다.

미국의 이러한 변경된 構想이 高位水準에서 처음 제시된 것은 74年 11月 포드大統領의 訪韓에 따른 朴正熙大統領과의 會談에서이다. 『中·蘇가 南韓에 대해 평등한 待遇를 한다면 미국도 北韓을 外交적으로 승인할 것을 고려한다』는 포드의 提議가 바로 그것이다.

이 構想도 北韓의 反對는 물론 中共의 積極적 反對에 부딪혔다. 그러나 75年 末로 예정된 포드의 訪中에 따라 이 問題에 대한 「進展」이 있지 않을까 하는 希望的인 觀測을 해 본다. (이 問題에 대해서는 中共의 對韓政策部分에서 詳述할 예정이다)

여기서 미국의 한 學者가 그리는 四強의 交叉承認과 南北關係의 進展像을 간단히 소개하기로 한다. 69)

제 1 段階에서 四強은 世界各國 (첫 段階에서는 제 3 世界 다음 段階에서 西歐와 東歐) 의 南北韓同時承認을 유도한다. 제 2 段階에서 四強은 南北韓을 유엔과 國際機構에 동시 가입시킨다. 제 3 段階에서 南北韓 政府間의 公式關係의 樹立과 四強의 南北韓交叉承認을 동시에 추진 (synchronized movement) 한다. 이 段階는 좀더

섬세한 交渉의 段階로서 非公式 接觸・半公式連絡事務所의 交換 設立들이 고려될 수 있다. 제 4 段階는 南北韓이 双方의 「首都」에 사실상 「大使館」을 수립하는 段階이며 이로써 分斷은 合法化 (legitimization) 된다.

저명한 한 共產黨 研究家도 四強의 對韓協定을 제의하고 있다. 70) 그는 韓半島의 安定을 유지하기 위한 四強의 協定締結은 비록 그 協商過程이 오래 걸리겠으나 궁극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71)

## 第 2 節 七〇年代 中共의 對韓政策

### I. 美・中共 테탕트와 한국문제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닉슨 行政府가 中共과의 테탕트를 추구할 뜻을 밝히고 對韓政策의 變更을 강력히 시사한 뒤 中共은 韓半島問題 解決에 대해 구체적인 構想을 밝혔다. 71년 8월 周恩來 首相은 뉴욕 타임즈紙 제임스 레스턴과의 會見에서 72) 美軍이 南韓에서 철수한 뒤 南北韓 사이에 和解를 이룩하고 한국의 평화적 統一을 향해 나갈 수 있는 方法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周는 또한 현재의 韓 國休戰協定을 南北間의 「平和條約」으로 대체함으로써 韓半島의 分斷을 固定化하고 이에 기초하여 南北間의 和解를 성립시킬 것을 주장했다. 周의 主張에서도 韓半島의 統一보다 南北間의 緊張緩和에 神經을 쓰는 強大國의 姿勢가 엿보인다.

이 점은 周가 韓國問題를 「日本軍國主義」問題와 연결시켜 파악하는 데에서 더욱 뚜렷하다. 中共은 아시아에서 美軍이 물러나고

있는 時点에서 南北間의 緊張이 緩和되지 않는다면 日本의 右翼勢力에게 再武裝推進의 구실을 주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 같다. 周는 이러한 憂慮를 대변하는듯 『日本의 反動勢力들은 한국에서 武力衝突이 일어나는 경우 日本이 (自衛隊의 派韓을 포함한) 先制攻撃을 취해야 하며 對岸의 불처럼 방관해서는 안된다고 떠들어 대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日本은 일이 잘 안되는 경우 美軍이 철수한 즉시 南韓에 개입하기 위해 韓·日基本條約을 이용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周에 의하면 한국문제는 「日本軍國主義의 復活」을 막는 問題와 직결된다는 것이다. 周는 韓國問題의 脈絡에서 어떻게 「日本軍國主義의 復活」을 방지할 것인지에 대해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韓半島에서 緊張을 緩和시키고 現狀을 동결함으로써 日本이 韓國에 개입하거나 또는 韓半島에서의 緊張을 구실로 再武裝하게 될 틈을 주지 않으려는 것 같다.

사실 中共의 對韓半島政策構想에서 특히 對南韓政策構想에서 日本이 차지하는 比重은 매우 높다. 淸日戰爭과 中日戰爭등 두차례에 걸쳐 日本의 侵略을 맞본 中共 指導層은 東아시아의 安全에 있어서 日本의 役割을 특별히 重視했다. 『美帝國主義나 어느 다른 帝國主義國家가 日本을 基地化함이 없이 東아시아에서 대규모 侵略戰爭을 개시하기란 어렵다. 東아시아의 平和는 日本이나 日本과 공모한 어느 다른 나라에 의한 平和의 破壞와 侵略의 再開를 방지하는 것이 가능한 한 보장된다』는 劉少奇의 主張은 그 대표적

한 例이다. 中共은 이러한 認識 위에서 1950년 2월 14일 蘇聯과 「日本帝國主義의 再生 日本侵略의 再發 또는 侵略行為에 있어서 어느 形態로든 日本과 同盟하는 國家에 공동 대처할 것」을 다짐하는 中·蘇友好同盟條約을 체결했던 것이다. 73) 中共은 이처럼 蘇聯과의 同盟體制로 日本을 견제하는 한편 日本國內의 이른바 平和主義勢力的 伸張에 期待를 걸고 이들의 統一戰線形式에 큰 價値를 두었다. 이 勢力은 대체로 日本이 美國과의 同盟體制를 버리고 中立主義의 旗를 걸을 것과 中共과의 關係正常化를 주장했으므로 中共은 이들의 立場을 적극 지지하면서 이들의 影響으로 日本이 中立化하거나 또는 親中共化하기를 기대했던 것이다.

그런데 中共은 60年代에 와서 이 政策들이 모두 中극적 目標을 달성시킬 수 없음을 깨달았다. 첫째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中·蘇同盟은 60年代 初에 「돌아 올 수 없는 다리」를 넘어서 中·蘇對決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中·蘇同盟의 存在 그 自体가 의심스러운 樣相이 되었다. 둘째 中共은 특히 60年代에 전개된 日本의 反安保鬭爭의 分析을 통해 日本「平和主義勢力」이 中共이 원하는 結果를 달성할 만큼 강하지도 않고 結集力이 크다고도 보지 않게 되었다.

그런 狀況에서 60年代 中半 이후 韓·日關係의 「正常化」와 이에 따른 여러 部面에서의 韓·日關係의 密着化는 北京을 크게 자극하는 것이었다. 中共은 韓國政府의 外交·軍事路線이 中극적으로 日本의 再武裝·軍事大國化를 전제로 東北亞에 강력한 反中共的

韓·美·日 3極體制를 형성하는데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한편 北韓에 대해 中共은 北韓의 바람직한 安定을 추구했다. 北韓이 中共에 대해 바람직한 安定이란 北韓의 大韓民國 또는 韓·美·日 3國同盟에 대한 強化 뿐만 아니라 中·蘇間에 있어서 北韓의 바람직한 位置設定을 뜻한다. 74)

69年 11月 발표된 『南韓의 安全이 日本의 安全에 重要하며 台灣의 安全이 日本의 安全에 重要하다』는 닉슨·사토共同聲明은 中共과 北韓의 接近과 韓國政府에 대한 中共의 非難을 동시에 強化 시켰다. 中共은 「美·日反動派의 中國侵略에의 최악적 陰謀」와 「日本軍國主義의 復活」등 日本에 대한 非難宣傳攻勢를 한층 더 強化했고 周4原則을 통해 韓國(및 台灣)을 원조하거나 그곳에 投資하는 企業과는 무역하지 않는다는 態度를 취해 韓·日關係의 密着化를 저지하려 했다. 이와 동시에 70년 4월 周恩來는 平壤을 방문(中共政府의 首腦가 平壤을 방문한 것은 63년 劉少奇 이래 7년만인 것이다) 金日成과의 共同聲明을 통해 「反美共同鬭爭」을 진행함과 동시에 日本「軍國主義」에 대한 反對鬭爭을 가일층 強化하는 決意를 밝혔던 것이다. 75)

中共의 이러한 對日姿勢에 미루어 周恩來가 中·日關係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의 韓·日關係에 주목하여 韓半島問題를 다루고 있음은 당연한 論理의 歸結이라고 하겠다. 이처럼 中共의 對韓政策이 中共의 對日政策에 종속된다는 事實은 앞으로도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中共이 韓半島에서 緊張을 緩和시킴으로써 日本의 再武裝과 韓·美·日 「同盟体制」의 出現을 방지하겠으며 韓半島의 새로운 紛爭으로 미국과의 테탕트를 깨뜨리지 않겠다는 기본적인 態度는 75년 4월 金日成의 中共訪問 때에도 반영된 것 같다. 76) 金이 北京到着 演說에서 『南韓에 「革命」이 폭발하면 적극적으로 지원 방관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강경한 武力使用 可能性을 거론함으로써 은연중에 中共의 암묵적인 支持를 받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金이 1週間の 中共訪問이 끝나고 4월 26일 발표된 共同聲明은 金의 強경한 語句에 대해 아무런 言及을 않고 있다. 韓半島 統一에 대해 中共이 밝힌 見解는 종래 平壤이 여러차례 주장해 오던 「自主·平和·民族大團結」이라는 原則과 「군사적 對立의 解消·高麗聯邦의 樹立과 이에 따른 國聯加入」등을 지지한다는 線이다. 觀測通들은 이러한 文案으로 미뤄 中共은 金의 호전적인 挑發衝動을 抑制하려고 설득했으리라는 評衡을 내리고 있다.

그런데 中共이 美·日·中共·蘇聯에 의한 南北韓 分斷의 現狀固定化와 유엔同時加入案에 반대하는 平壤의 主張에 동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注目を 요한다. 美·日이 北韓을 승인하고 中·蘇가 韓國을 승인한다는 이른바 4強의 交叉承認論은 當分間 期待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南베트남과 北베트남이 當分間 統一을 이루고 우선 유엔同時加入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것이 실현되는 경우 또 中共과 合

灣과의 關係設定 問題가 조만간 (예컨대 금년 말로 예정된 포드의 中共訪問時) 해결되어 形式이야 어떻든 實質적으로 中共과 台灣의 併存이 既定事實化하면 中共도 南北韓의 分断固定化에 대해 보다 유연한 態度로 나오지 않을까 추측된다. 77)

한편 中共은 미국과 中共의 敵對關係가 文書化되어 있는 유일한 것인 한국休戰協定을 「平和協定」으로 대치시켜 美·中共間의 데탕트를 實質化하는 作業을 보다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이것은 中共의 立場에서 볼때 韓半島의 動亂體制 解消作業의 마지막 段階를 의미한다. 이 解消過程에서 中共은 北韓에 同調 駐韓유엔軍司令部의 地位變更을 시도할 것이다.

中共은 駐韓美軍의 地位問題에 대해 어떤 態度를 취할 것인가? 中共은 아직까지 변함없이 駐韓美軍의 撤収를 요구하는 北韓의 主張에 공식적으로 철저히 동조해 왔다. 그러면서도 中共 指導層의 一部는 中共이 駐韓美軍을 인정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간헐적으로 보내 왔다. 78) 學者들도 美軍撤収로 인한 東北亞에 있어서의 힘의 空白을 결국 日·蘇가 메우리라는 展望과 美軍撤収가 日本의 再武軍備를 족구할 수 있다는 展望 때문에 中共이 終局的으로 감축된 規模의 美軍 駐韓을 인정할 것이라는 推論을 제시해 왔다. 사실 72년 2월 「닉슨」의 訪中에 따른 上海共同聲明에서 中共은 駐韓美軍의 撤収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는 않고 있다 이 問題에 대해서는 後述하겠거니와 美·中共데탕트의 進展 및 日·中共間 平和 條約締結에 따라 影響을 받을 것이다.

위와 같은 分析의 基礎 위에서 中共이 韓半島에서 취할 수 있는 몇가지 外交的 代案을 고려해 보기로 한다. 79)

韓半島에 대한 中共의 外交的 代案을 고려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念頭에 두어야 할 것은 中共이 北韓을 소의시켜 蘇聯便으로 가담시키거나 南韓을 日本의 勢力圈으로 편입시키게 될 行為는 회피할 것이라는 점이다. 北方에서는 蘇聯의 점증하는 威脅에 직면해 있고 南方과 東方에서 日本勢力의 登場에 대처해야 할 中共이 그러한 行為를 한다는 것은 무모한 외교적 孤立을 자초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본적 假定 위에서 韓半島에 대한 中共의 외교적 代案으로 다음 네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 『韓半島의 統一이 外勢의 干涉없이 자주적이며 평화적인 方法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北韓의 立場을 계속해서 일관되게 지지하는 代案이 있다. 닉슨과 周恩來의 上海共同聲明과 그에 따른 美·中共關係의 進展을 분석해 보면 韓半島에 관해 兩國에게 공통적인 問題는 統一의 問題라는 점에서 兩國이 합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上海共同聲明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韓國統一問題가 美·中共關係의 改善을 위해 아시아에 있어서 超強大國의 霸權問題·台灣問題·인도차이나戰爭의 解決問題와 같은 水準으로 主要 争点이라는 점이다. 中共의 見解로는(이 점에 대해서는 미국도 同意했다) 한국의 統一問題는 한국인 스스로에 의해 자주적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의 統一問題에 대해 強大國의 解決方案을 수락하지 않겠다는 北韓의 일관된 主張의 명백한 保障이다.

둘째 南韓으로부터 美軍의 完全撤収를 요구하는 北韓의 主張을

실현시키기 위해 일단 北韓으로 하여금 韓半島에 있어서 南北併存의 現狀을 받아들여도록 설득하는 方法이다. 中共은 미국이 南韓政府를 지원하고 있는 한 革命的 方法으로 南韓의 現政府를 타도하려는 北韓의 試圖가 그 目標을 달성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南朝鮮革命」은 기본적으로 2段階를 거쳐야 한다는 새로운 戰略을 내놓고 있다. 그 첫 段階는 무엇보다도 駐韓美軍의 撤収를 『南朝鮮 人民의 大多數의 支持를 얻어』 실현시킨다는 것이다. 그 다음 段階는 「南朝鮮에서 미국의 政策에 協調한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大衆의 支持」를 獲得함으로써 「人民民主義政府」를 樹立한다는 것이다. 「人民民主義政府」는 일정한 過渡期를 거쳐 「社會主義革命」의 段階로 발전시켜야 하는데 이 段階에 대비하기 위해 「北朝鮮은 南朝鮮이 모방할 더 강력하고 더 나은 社會主義制度」를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강 이러한 論理로서 中共은 北韓으로 하여금 南北韓併存의 現狀을 일단 수락하도록 설득할 수도 있다.

세계 韓半島의 將來에 대해 緊요한 利害關係를 가지고 있는 韓半島의 週邊4強의 同意와 合意 아래 韓半島를 中立化하는 方法이다. 맨스필드 美上院議員이 제안하였던 바와 같이 韓半島의 中立化는 4強의 影響과 利害關係의 全面的 排除를 전제하며 한국의 자주적이며 非同盟的 地位를 보장한다. 強大國이 이 代案을 택할 可能性이 없지는 않은 듯 하지만 南北韓은 모두 韓半島의 中立化構想에 맹렬히 반대하고 있다.

네째 南北韓 分斷의 固定化를 실질적으로 수락하고 이 方向으로 北韓을 설득하는 方法이다. 北韓의 對蘇傾斜를 막기 위해 北韓의

「駐韓美軍撤收」口號에 동조는 하지만 아시아에서 퇴조해 가는 미국으로 하여금 中共에 대해 威脅勢力이 아니라 日・蘇에 대한 牽制勢力으로 남도록 한다. 이와 동시에 한국정부의 中共接近을 받아 들인다.

오즈하教授의 論文에 의하면 中共은 事實 美國과 同盟關係에 있는 東아시아國家들의 關係改善 提議에 대해 뚜렷한 政策을 세우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그 理由로 中共은 이들 國家들이 美國에서 독립한 自主外交를 택하는 것을 환영하면서도 東아시아에 있어서 美國의 同盟體制가 와해되는 것을 두려워 하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政策이 나올 때까지 어느 種度 영거주춤하고 있다는 것이다. 80)

그가 韓國의 경우를 꼭 짚어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이는 우리의 경우에도 타당한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 따라서 앞서 지적한 바와같이 포드의 訪中에 따라 美・中共關係가 정상화되고 또 台灣의 地位가 어떤 形態로든 인정될 뿐만 아니라 南北越의 유엔同時加入이 구체화되는 경우 中共은 한국정부의 接近에 상당한 反應을 보이지 않을까 希望的인 추측을 해 본다.

그런데 中共의 對韓關係 設定에 있어서는 韓・日關係를 상당히 의식할 것이다. 72년 다나카의 訪中에 따른 日・中共共同聲明에서 제일 먼저 나온 問題가 韓半島問題(인도차이나問題는 2位)였다는 점은 한국문제를 바라보는 中共의 눈에 韓・日關係가 상당히 부각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81)

中共 指導層이 韓半島問題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길을 택하게

될지는 아직 未知數이다. 그러나 中共이 오늘날 스스로를 強大國 政治의 흥정에 의해 犧牲될 수도 있는 弱小國 및 中小國의 「침피 언」으로 자처하고 그 나름대로 이 公約에 충실하려고 하는 點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中共 指導層은 『국가는 獨立을 民族은 解放을 人民은 革命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歷史的 潮流의 大勢라고 호언하고 있다. 그러므로 弱小國과 中小國은 美·蘇兩大國의 霸權과 權力政治에 反對하기 위해 모두 團結해야 하며 특히 第3世界의 國家들은 『兩大國의 侵略·顛覆·搾取·干涉·抑圧』에 대결하기 위하여 「폭 넓은 統一戰線」을 형성하여야 한다고 北京은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統一戰線의 틀 속에서 北京은 「美帝」와 蘇聯의 「社會主義帝國主義」 및 日本의 「軍國主義」에 대항하기 위해 中共과 北韓 및 日本「人民」들의 「밀접한 協力」을 주장하고 있다. 82)

앞으로 수년간 中共은 우선 스스로의 安全保障의 改善에 總力을 기울일 것이다. 60년대의 孤立主義에서 벗어나려는 努力을 계속하고 共產·非共產國家와의 關係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中共은 또한 제한된 規模의 經濟·軍事援助와 言說을 통해 世界革命과 第三世界를 지지하는 立場을 취할 것이나 關心과 財源의 分配에 있어서 『아시아』가 1次的 對象地域이 될 것이다. 中共邊境의 弱小國 가운데 우호적인 國家는 援助와 그들 國內問題에 대한 최소한의 介入을 통해 보상하고 적대적인 國家에 대해서는 그들 내부의 反政府運動을 지지하거나 다른 方法의 報復을 통해 응징하는 2重政策을 취할 것이다. 83)

여기에 앞서 지적한 統一戰線政策이 복합될 것인데 中共의 南北韓 關係도 이러한 큰 테두리 안에서 이해 전망될 수 있을 것이다.

### 才 3 節 七十年代 日本의 對韓政策

#### I. 日本外交路線의 模型

70年代 日本의 對韓政策을 분석하기 위해 우리는 우선 70年代에 있어서 日本이 취할 外交的 進路에 대해 분석할 必要가 있다. 다음에서 日本이 취할 外交的 進路에 대한 論議를 간단히 살펴기로 한다. 84)

#### (가) 共產主義外交路線

日本이 共產主義外交路線을 택할 可能性은 아주 희박하다. 日本이 共產主義外交 또는 社會主義國家 및 國際革命勢力과의 統一戰線外交를 하게 되는는 것은 결국 日本社會黨이나 共產黨의 執權黨의 執權下에서만 가능한데 이 可能性은 희박하다. 自民黨의 得票率이 내려가고 있으며 따라서 自民黨—民社黨, 自民黨—公明黨, 自民黨—民社黨—公明黨의 聯政可能性이 얘기되고 있음은 事實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保守的인 日本人이 共產政權이나 共產主義者가 지배하는 聯政을 탄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國內革命이 있을 때에만 가능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적할 것은 日本이 中共이나 蘇聯과 同盟水準의 밀접한 關係를 갖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후술하겠지만 先進工業國家로써의 日本이 蘇聯이나 특히 中共과 가질 수 있는 경제적 紐帶(通商등)는 西歐와의 紐帶에 비해 아주 작다. 日本國民의 輿論調查도 日本人이 스위스, 영국, 프랑스, 美國을 가장 좋

아하는 나라로 생각하고 있는 반면 蘇聯과 中共을 (韓國과 더불어) 가장 싫어하는 나라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나) 中立主義<sup>85)</sup>

日本이 中立路線을 택하여야 한다는 主張은 日本社会党的 專用物이었고 오늘날에도 公明党 自民党的 少莊派 상당수의 市民(輿論調査에 의하면 약 3할)이 이를 지지하고 있다. (리차드 헬로런의 表現을 빌리면 온건右派 中道派가 中立主義를 지지한다.) 이 立場은 기본적으로 日本이 資本主義와 共產主義의 中間에 서서 思想과 制度의 差異를 고려함이 없이 모든 나라들과 동등한 關係, 즉 等距離外交를 해야 한다는 데 있다. 이 中立主義는 구체적으로 어떤 形態를 취하는가? 스칼라피노는 이들이 주장하는 中立主義는 非同盟政策과는 구별되는 等距離多極主義에서의 中道主義라고 定義하고 있으나 中立主義論者들의 상당한 部分이 인도나 統一아랍共和國이 취한 非同盟主義를 상정하고 있는 것은 事實이다. 或者는 스위스 스위스련의 中立을 상정하기도 한다. 이러한 差異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日本의 對外役割이 政治·軍事圈보다 經濟圈에 한정되어야 한다는데 일치하고 있다.

國家安全保障面에서 武装中立과 非武装中立의 兩論이 있다. 이들은 모두 美·日安保條約의 廢棄와 日本으로부터 美軍基地의 完全撤収를 주장한다. 그 代案으로 특히 非武装中立論者들은 美·蘇·中共이 공동보장하는 安保協定の 統結을 주장한다.

이러한 中立主義에 대해 批判 역시 강하다. 反對論은 우선 中立主義가 상정하고 있는 國際秩序에 있어서 等距離多極主義의 存在

와 또는 出現可能性을 疑心한다. (간단한 例로 中·蘇對決을 指摘한다.) 反對論<sup>은</sup> 또 中立主義가 日本의 繁榮이 先進工業國家와의 經濟紐帶의 統持 및 增大에 달려있다고 전제하고 80년대까지도 日本貿易의 33%以上을 차지하는 美國과 6~8%밖에 차지하지 못하는 中·蘇에 대해 日本이 어떻게 等距離—中立路線을 취할 수 있겠는가고 반문한다. 또한 日本은 政治的 價值 文化·經濟成長으로 인해 나타난 都市膨脹 公害 交通問題 등 여러가지 點에서 共產圈보다 美國 西歐에 훨씬 더 가까운만큼 防衛問題에 있어서도 中立을 취하기 어렵다고 본다. 또 強大國安保는 違返의 境過 責任질 國家가 없고 中·蘇對決 및 中·蘇의 日本經濟力 및 軍國主義化에 대한 憂慮 등으로 真正한 安全保障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武装中立에 대한 反論도 크다. 라이샤위에 의하면 武装中立은 日本에겐 너무 비싸다는 것이다. 現在 國民總生産(GNP)의 1.2%軍費에 할당하고 있는 日本이 武装中立을 택하는 경우 日本本과 크기가 비슷한 國家水準으로 割當만 한다면 4~6% 美·蘇·中共의 水準으로 할당한다면 8~10%로 軍費支出이 격증한다고 본다. 특히 스위스와 스웨덴은 비교적 世界의 安全地域에 위치하고 있는만큼 軍事費支出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이것은 日本經濟의 成長을 극도로 제한할 것이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中立論의 主要 理由가 美國과 共產圈사이의 開戰時 日本을 살려낼 수 있다는 것이지만 全面戰의 경우 日本은 中立에도 불구하고 그 地理上 戰爭의 被害를 함께 당해야한다고 보고 있다.

(대) 콜리즘

日本이 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은 同盟國과의 絶縁을 각오하고 独自路線을 걸어 自國의 利益을 추구하는 콜리즘이다. 오늘날 콜리즘을 지지하는 日本人은 수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民族主義가 高潮됨에 따라 (특히 美國에 대한 不信이 커짐에 따라) 知識人과 政治人 사이에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 政策아래서 日本은 美·日安保條約을 廢棄하고 아시아에 있어서 그의 독자적인 政治·經濟政策을 추구하며 특히 東南亞에 있어서 지배적인 勢力이 되고자할 것이다. 日本콜리즘 擁護者들은 美·蘇·中共이 서로 그들 가운데의 어느 하나가 東南亞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견제할 것인만큼 權力의 空白이 나타나고 東南亞의 발칸化가 予想되는데 東南亞는 日本의 貿易과 安保利益上 긴요한 地域인 만큼 日本이 이 權力의 空白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또한 장차 언젠가는 日本은 外部威脅에 직면하고 그의 利益이 무시되거나 경시 되는 경우에 처하게 될 것인만큼 日本은 對美依存을 버리고 独自路線의 길을 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主張들은 結局 日本의 核武装潛在力에 대해서는 所謂 「核化마이너스 2年」이라 하여 核化의 決定만 내리면 2年 이내에 가능하다고 말하여지고 있다. 그러나 日本이 땅덩어리는 작는데 비해 많은 人口가 밀집해 있어서 核武器를 갖는다 해도 核抑制力의 均衡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核無用論이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核武装의 경우 中·蘇와 東南亞를 극도로 刺戟, 國際

的 獨立을 스스로 가져오고 國內으로는 野黨과 소위 「防衛知識 層을 비롯한 國內 平和主義勢力의 맹렬한 反撥로 심각한 政治的 變率을 가져올 念慮가 있다. 이것은 日本經濟의 高度成長의 바탕인 自由貿易體系를 크게 위협한 것이다. 反對論者들은 또 海外市場이 軍事力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는 主張은 旧時代的 思考이며 오히려 日本經濟力에 바탕을 둔 外交力에 의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86)

(라) 美國과의 緩和된 同盟 87)

日本이 택할 수 있는 才4案은 日本이 美·英關係에서의 英國처럼 하나의 대등한 相對로서 美國과 새로운 同盟을 추구하는 方法이다. 日本의 많은 保守派와 所謂 이스테블리시먼트가 이 案을 지지한다.

日本은 蘇·中共의 核威脅에 대해서는 美國의 核우산에 의존하면서 在來式 戰力을 어느 程度 增強한다. 제한된 範圍內에서 美軍의 日本駐屯은 계속된다. 日本은 美國과의 協議아래 아시아에 있어서 政治的 經濟的 主導權을 장악한다. 政治的 經濟的 負擔은 美·日間の 相對的 힘에 비례하여 결정된다. 日本은 아시아의 安定을 위해 主要한 努力을 기울일 것이며 美國은 日本指導者들에게 충분한 信賴를 주고 美國이 英國과 다른 유럽의 盟邦들과 가져온 같은 關係와 誠意로써 日本과 협의한다. (또는 에도·신기찌教授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美·日安保條約을 계속 유지하면서 中共·蘇聯 몽고와도 각각 不可侵條約을 갖는 2重安保體制도 可能하다) 88)

이 方案은 日本人의 自尊心과 新興民族主義에 어긋나지만 앞에서 지적한 核武装化에 따른 内外의 危險性을 제거할 수 있는 長점이 있다고 論者들은 지적한다. 특히 앞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美·日간의 經濟·文化繼帶가 兩國이 갖고 있는 아시아- 특히 東北亞에 있어서 政治·軍事的인 平衡에 대한 共同의 利害關係등이 美·日간의 새로운 同盟關係를 지지하는 論拠가 되고있다.

## II. 日本의 對韓政策論議

우리는 前項에서 日本이 취할 수 있는 외교적 進路에 대한 다양한 論議를 살펴 보았다. 이러한 論議의 多樣性은 韓半島政策 論議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89)

우선 右翼의 見解를 살핀다. 自民黨政府의 對韓政策은 美·日安  
保條約 및 韓國이 日本의 安保에 미치는 影響을 고려한 전략적  
價值와 韓國이 日本의 經濟圈에서 차지하는 位置를 고려한 경제적  
價值를 바탕으로 형성됐다. 이 가운데에서 더 중요한 比重을 차  
지해 온 것은 日本의 安保에 대한 考慮이다. 바꿔 말하면, 日本  
人의 主要關心은 韓半島가 日本에 적대적인 國家(예컨대 中·蘇의  
共產國家)의 실제적 影響아래 놓인다는 것은 日本의 安全에 중대  
한 危脅이기 때문에, 최소한 韓國의 共產化를 피해야 한다는 點에  
있다. 69年11月의 닉슨·사토共同聲明에서 사토首相이 「韓國의 安  
全은 日本의 安全에 緊要하다」고 선언한 점은, 물론 美國의 오키  
나와 返還에 대한 代價支払이라는 點도 있으나, 前記한 論理의 反

映이라고 볼 수 있다. 民社党도 自民党的 論理에 대체로 동조하고 있다. 대부분의 日本市民들의 韓半島觀도 위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社会党·共産党·「防衛知識人」들은 이 論理를 부인한다. 公明党도 어느 정도 이 論理를 부인하는 立場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社会党和 共産党은 中·蘇와 같은 社会主義國家는 社会主義의 理念上 다른 나라에 대해 侵略의 慾心을 품고 있지 않다고 보고 이 點은 北韓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北韓에 국한하여 말한다면, 社会党和 共産党은 北韓이 설령 南韓을 지배한다. 하여도 北韓은 日本을 침략할 意思와 能力이 없기 때문에, 日本에게 危脅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또한 戰後 日本이 蘇聯과 「共存」를 들어 韓半島전체가 亦化된다 해도 충분히 「共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日本의 主要言論은 대체로 이 主張을 받아들이고 있다.

筆者는 自民党 政府가 韓·日 兩國의 安全을 상호 연결시켜 파악한다고 지적했다. 이 點은 韓半島 有事時 日本의 「군사적」 介入을 의미하는 것인가?

日本政府가 韓國戰爭의 再發을 전제로 하는 自衛隊의 對美作戰協力計劃을 몇 차례 작성·실시했던 것은 사실이다. 三失作戰計劃(正式名은 「昭和38年度統合防衛圖上研究實施計劃：63年」), Flying Dragon作戰(64年), 「昭和40年度統合戰略 見積」(64年), 부루란作戰(65年), golden Dragon作戰(70年) 등이 그 实例들이

다. 90) 뿐만 아니라 韓半島는, 또는 최소한 南韓은, 美日安保條約의 發効對象地域인 「極東」에 속하고 있어, 美國의 요청에 따라 日本의 「군사적 介入」이 가능할 수 있다는 主張도 있다. 91)

따라서 中·蘇, 北韓등 隣接共産國과 國內의 左翼勢力( 社会党·共産党등)은 韓·美·日 「軍事同盟」의 出現可能性 92) 을 맹렬히 공격했고, 특히 日本自衛隊의 南韓 「出兵」可能性에 集中攻擧를 퍼부었다. 이 攻擧는 韓·日協定調印( 65年)을 契機로 더욱 고조되었다. 社会主義者들은 韓·日協定이 장차 출현할 日本·台灣·南韓·美國을 묶는 「東北亞條約機構」에의 첫 段階라고 선언했던 것이다. 93)

韓·日協定가운데에서 社会主義者들이 日本의 對韓 「軍事介入」과 관련, 가장 의심한 部分의 하나가 同協定 제 4 條였다. 韓·日間의 基本關係를 수립하는 이 條項에는 相互의 福祉와 共同利益을 증진하기 위해 UN 憲章에 입각한 相互協調에 關係 모호하게 언급되어 있다. UN 憲章은 地域安保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 條項은 결국 日本自衛隊의 「南韓出兵」을 의미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는 論難이 일었던 것이다. 이 論難은 닉슨·사또共同聲明의 「韓國條項」으로 더욱 심화됐고, 社会党이 南北韓등 아시아 分斷國에 대한 일체의 不介入을 요구하는 「아시아不介入 3 原則」을 제창하기에 이르렀다. 94)

이러한 日本의 對韓 「軍事介入」論은 韓半島에 국한하여 분석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前項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日本의 世界戰略 또는 아시아戰略의 큰 테두리 안에서 분석되어야 할 性質의 것

이다. 前項에서 지적 바와 같이, 日本이 核武装・再軍備와 海外出兵의 코스를 택할 경우, 國內政治의 分裂과 이에 따른 정치적 混亂이 심화되고 中・蘇의 強力한 反撥을 초래할 것임을 自民黨 指導者들도 인식하고 있다. 최근에 발표된 한 日本外交官의 論文도 韓半島에 대한 出兵은 고사하고, 「日・美間의 對韓軍事協調를 위한 日本의 어떠한 군사적 準備」도 반대에 부딪칠 것으로 보고 있다.<sup>95)</sup>

따라서 自民黨 政府는 經濟援助로서 南韓經濟를 안정시킨다면 그것이 바로 南韓의 安全에 대한 日本의 寄與라는 論理를 전개했다. 自民黨 政府는 특히 南韓經濟를 안정시킴으로써 南韓을 共產圈과 日本의 強力한 緩衝地帶로 세우려는 意圖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sup>96)</sup> 이이에 대해 社會黨을 비롯한 左派勢力과 主要言論은 日本이 北韓과의 關係를 「正常化」하고 南北韓에 대해 「等距離外交」를 함으로써 韓半島에 있어서 南北間의 힘의 均衡을 잡아 줘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sup>97)</sup> 南北間의 均勢에 의해 「조용한 韓半島」을 유지해 나간다면, 日本이 韓半島에 개입하게 됨으로써 빚어질 國內外의 波動을 막을 수 있다는 論理이다.

美・中共 대탕트는 日本으로 하여금 韓半島의 緊張緩和에 좀 더 적극적인 姿勢를 갖게 하고 특히 北韓과의 關係擴大(결국 「2個의 韓國」을 의미한다)라는 現狀認定의 方向으로 나가게 하였다. 사토首相은 72年1月 닉슨・사토共同声明의 「韓國條項」이 「失効」라고 선언하는 한편 산 클레멘트에서 열린 닉슨과의 頂上會談共同

声明(72年1月)에서 「韓國條項」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98)

73年度 日本의 外交青書도 「南韓과의 協力關係를 유지할 것이나 이와 동시에 北韓과의 接觸에 대해서는 극히 세심한 配慮를 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擴大해 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進度에서 볼 때 73年8月 닉슨·다나카共同声明이 問題의 「韓國條項」에 대해 전혀 言及함이 없이 다만 韓半島에서 南北間의 對話의 길이 열린 것을 환영한 것은 당연한 論理의 帰結이라 하겠다.

日本政府가 결국 「2個의 韓國」으로 흐를 것이라는 推定을 어느 정도 가능케한 資料는; 「2個의 韓國」의 論理가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韓國의 73年6月23日字 大統領特別宣言에 대한 오히라(大平正芳)外相의 声明이다. 그는 6·23宣言을 「현실적이고도 건설적인 提案」이라고 평하면서, 첫째 平壤과의 정치적 關係는 南北關係의 進展을 銳意檢討한 뒤 결정하고, 둘째 北韓과는 外交關係가 수립되지 않았으므로 輸出入銀行資金의 使用에 있어서는 프로젝트別 베이스로 고려할 수 있고, 셋째 北韓과의 交流를 중지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99) 6·23宣言은 日本·北韓關係의 進展을 막았던 障害物 하나를 제거해 준 셈이다.

北韓도 日本과의 關係樹立을 위해 적극적인이며 유연한 姿勢로 나왔다. 金日成은 1971年9月27日 韓日新聞과 5時間에 걸친 電話會見을 통해 貿易 및 余他關係에 있어서 日本과의 交流의 増大를 요구했고, 100) 72年을 「日本과의 友好의 해」로 선언했다.

이에 따라 72年1月 11名의 議員을 포함한 侵節團이 平壤을 방문, 黨書貿易協定을 체결했다. 101) 그 이후 日·北韓貿易은 70年의 5千7百70萬달러에서 76年의 5億弗(推定)로 증가했다. 이 額數는 日本이 곧 北韓의 對外貿易에 있어서 제2位의 파트너(제1位는 蘇聯)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밖에도 北韓은 韓·日基本條約廢棄要求의 撤回과 對日請求權의 拋棄등을 내걸고 특히 「人民對人民外交」의 水準에서 어느 정도 成果를 보았다고 할 수 있다. 102)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日本 政府의 對北韓姿勢는 오직 徐徐한 變化를 단계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물론 기무라(木村俊夫)外相은 韓半島問題에 대해 적극적인 姿勢를 취하기도 했다. 그는 「韓國條項」이 時宜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南韓의 平和와 安全보다 韓半島全體의 平和와 安全이 日本의 安全에 重要하다」고 선언했던 것이다. 103) 「오늘날 南北韓을 동시에 인정하고 있는 國家는 38個에 이른다. 이것은 하나의 提示가 아닌가?」고 지적한 기무라의 主張은 확실히 日本政府가 南北對話의 進展, 韓國問題에 대한 유엔의 討論, 南韓에 대한 中·蘇의 態度變化에 따라 「2個의 韓國」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104) 사실 미끼(三木武夫)政府는 韓半島의 現狀認定에 대한 關聯強大國의 事實上의 了解를 국제적 大勢로 받아들이고 있고 南北韓을 분단시킨 채 쌍방과 經濟交流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

결론컨대 70年代 後半 日本의 韓半島政策은 美國의 對北韓政策과 日・中關係의 테두리 안에서 전개될 것이며, 南北韓等距離外交는 政治・經濟・文化의 모든 面에서 점차로 확대될 것이다. 특히 經濟 部面에서 日・北韓接觸擴大可能性이 크다. 自民黨 政府는 對韓 補償樣式으로 비롯된 對韓經濟協力의 특수한 關係를 對韓國際經濟委 (IECOK)나 아시아銀行등을 통한 다원적이고 일반적인 形態로 바꿔 北韓市場開拓을 점차적으로 확장할 것에 대비하고 있다. 이것이 결국 日本의 南北韓 等距離外交로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 才4節 七〇年代 蘇聯의 對韓政策

##### 1. 蘇聯과 「2個의 韓國論」

蘇聯의 對韓政策 또는 蘇聯의 對韓半島觀을 파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우선 우리는 과연 蘇聯이 韓半島問題의 解決을 위해 하나의 構想을 갖고 있는지조차에 대해 지극히 회의적이다. 한 學者에 의하면 1972年 5月 모스크바에서 열린 닉슨・브레즈네프 頂上會談에서 韓國問題는 拳論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105) 1884年 韓・露條約 체결 당시에도 러시아는 심지어 韓國併呑까지 拳論하면서도, 결국은 그 併呑이 그들에게 利益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韓國은 「同盟으로 삼아서 得될 것도 없고, 敵이 되기엔 너무나 無力한 나라」로 판단되었다는 것이다. 106) 오늘날 蘇聯 指導層의 對韓觀이 이와 같지는 않을 것이나, 韓半島問

題에 대해 어떤 構想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蘇聯의 對韓政策은 두말할 것 없이 蘇聯의 對美·對日·對中共政策에 종속되어 있다. 이 점에서 볼 때, 蘇聯은 韓半島의 現狀固定과 南北併存을 지지해 왔고 앞으로도 지지할 것이라고 일단 추정할 수 있다. 過去에 있어서 南北分斷은 越南分斷과 마찬가지로 美·中接近을 저지해 온 하나의 障礙였고 따라서 中共의 孤立을 계속 가져 왔던 要因이었다. 蘇聯이 韓國統一을 위해 蘇聯 스스로의 이니셔티브를 결코 취하지 않았던 理由는 바로 그러한 利益 때문이었다. 107)

美·中共 데탕트가 진전되었다고 해서 蘇聯의 統韓問題에 대한 態度가 바뀌었다고 보기 어렵다. 蘇聯에서 볼 때는 韓半島에 統一政府가 세워져서 그것이 中共이나 또는 다른 強大國(특히 日本)에 밀착되는 것 보다는 분단된 채로 남아서 中共이 平壤과 제휴한다 해도 蘇聯이 韓半島에 대해 어떤 影響力을 행사할 수 있는 余地(즉 南韓)를 갖고 있고자 할 것이다. 108)

특히 美國과의 데탕트를 계속 유지·발전시키려는 蘇聯의 基本路線에 變함이 없음과 中共을 견제하기 위해 日本과의 關係改善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日本의 核武裝可能性을 경계하고 있음은 第2章에서 이미 지적했었다. 따라서 蘇聯이 그러한 目的들에 어긋날 韓半島에서의 現狀打破를 추구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蘇聯의 對韓政策은 또한 蘇聯의 對獨政策과 연관되어 있다. 蘇聯이 獨逸分斷의 固定化를 추구하고 있음은 周知하는 바로서 獨逸

의 統一慾求를 자극할 韓半島의 統一 보다는 역시 分斷의 固定化에 더 큰 關心을 갖고 있을 것이다.

筆者의 이러한 推定을 뒷받침할 직접적인 文件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71년 8월 南北對話가 열린 이후 蘇聯의 南北對話에 대한 評價(報道·解説·官邊의 態度)에서 약간의 「심리적 傍証」을 얻을 수는 있다.

南北對話가 열린 이후 蘇聯의 官營미디어들은 南北接觸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反應을 보였다. 109) 그러나 日本每日新聞 모스크바 特派員의 觀察에 의하면 蘇聯은 南北間의 不戰約束에 대해 전적으로 환영하면서도 南北平和統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에 대해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公式論評을 가하지 못했다고 한다. 또한 그는 韓半島에서 최초로 資本主義國家와의 結合이 실현될 경우에 따른 對備策은 크레믈린의 教科書에도 記述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110)

南北會談이 열린 이후 蘇聯은 南北間의 對話增進과 「平和條約」 체결을 강력히 지지하고 統一보다 「軍事衝突의 防止」와 「緊張緩和」에 力點을 두는 傾向이 강하다. 111) 브레즈네프도 南北韓이 善隣關係를 수립할 것(73년 7월)과 南北對話를 통한 「平和」統一의 努力을 높이 평가했다. (73년 8월)

蘇聯은 사실 「2個의 한국」 또는 최소한 南韓과의 半公式的 接觸擴大에 관심을 갖고 있다. 73년 韓國選手團의 유니버시아드 大會參加를 계기로 한 蘇聯入國 演劇人 및 財界人士의 蘇入國 등

이 그 한 例이다. 美國을 방문한 蘇聯의 極東問題專門家들도 「私的」意見임을 전제로 統一은 가까운 將來에 있을 것 같지 않으며 그 中間段階로서 「2 個의 韓國」의 認定이 있어야 할 것을 표명했다고 한다. 112) 그러나 이에 대한 北韓의 맹렬한 反對로 113) 中·蘇紛爭을 의식하는 蘇聯이 그러한 코스를 택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II. 蘇聯이 취할 수 있는 코스

이러한 背景을 念頭に 두고 蘇聯이 韓國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코스를 몇몇 學者들의 分析을 종합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첫째 蘇聯은 北韓의 對南軍事作戰을 지지하거나 고무하지 않을 것이다. 바꿔 말하여 蘇聯은 스스로가 불가피하게 말려들 제 2의 韓國戰은 회피할 것이다. 114) 자코리아教授에 의하면 제 2의 韓國戰은 다음과 같은 結果를 가져 올 것이다.

① 美·蘇, 日·蘇關係를 아마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키며 德탕트에 終幕을 가져 올 것이다.

② 현재 南韓에 4萬2千名の 軍隊를 주둔시키고 있는 美國과 單事的 對決을 유도할 것이다.

③ 1950 년과 마찬가지로 中共의 軍事적 介入을 가져 올 것이며 따라서 北韓이 中共의 影響圈下에 들어갈 危險性이 높아진다.

④ 日本의 再武裝 및 美·日關係의 再強化를 가져올 것이다.

⑤ 많은 아시아國家로 하여금 蘇聯의 膨脹主義를 회피하기 위해 中共이나 美國으로 쫓리게 할 것이다.

⑥ 東아시아에 있어서 영토적 現状의 認定을 의미하는 蘇聯提案의 「아시아集團安保」機構의 眞實性에 대한 중대한 疑或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

⑦ 장기적으로 볼 때, 제 2의 韓國戰은 蘇聯의 최대의 惡夢인 美·中·日同盟의 形成을 재촉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推定은 美國의 對韓防衛公約이 그대로 계속해서 남아 있을 것이며 北韓의 對南攻擧이 北韓 美國의 戰爭을 가져올 것이라는 前提 위에 서 있다. 이러한 特定은 또한 日本이 韓國의 安保에 강한 利害關係를 갖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갖게 될 것이라는 前提 위에 서 있다.

둘째, 그렇다고 해서, 蘇聯은 韓國을 인정하도록 北韓에게 壓力을 가하거나 또는 「2個의 韓國」을 공개적으로 들고 나올것 같지는 않다. 蘇聯이 内心 「2個의 韓國」을 받아들여서는 態度임은 지적인 바 있다. 그러나 蘇聯은 北韓이 中共에 傾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韓國政府의 正統性을 부인하는 北韓의 立場을 공식적으로 지지할 것이다.

이 두 個의 극단적인 代案을 제외하고, 자고리아는 다음 두 個의 온건한 中道的 代案을 추정하고 있다. (15)

첫째, 北韓의 政策을 공식적으로는 지지하면서 蘇聯은 조심스럽게

그러나 思慮깊게 南韓과의 接觸을 확대할 수 있다. 蘇聯이 이러한 方向으로 움직이려 했음은 앞에서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毛沢東이 中共은 韓國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이상, 蘇聯도 이 예를 따르도록 더 큰 壓力을 받고 있다고 하겠다.

둘째, 北韓의 政策을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한편, 蘇聯은 南韓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 것도 하지 않을 수 있다. 자고리아는 蘇聯이 현재의 韓半島狀況이 아주 견디기 어려운 것은 아닐 것 (Moscow may not be overly uncomfortable with the present situation in Korea)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中共도 美國과의 關係를 개선하고 있으며 따라서 北韓에게는 「의심스러운 同盟」인 이상, 北韓이 中共陣營에 넘어 간다는 것은 거의 생각할 수 없으며, 北韓이 군사적으로 깊이 의존하고 있고 北韓의 최대의 貿易相手는 蘇聯이라는 점을 그는 지적한다. 따라서 北韓이 蘇聯이 불가피하게 말려들 戰爭만 도발하지 않는 한, 現狀況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라고 추정한다.

여기서 問題視될 수 있는 것은 北韓에 대한 蘇聯의 統制手段 (leverage)이 어느 정도이냐이다. 물론 蘇聯이 北韓에 대해 어떤 壓力을 가했느냐에 대한 例證들이 아주 드물기 때문에,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蘇聯과 越盟과의 關係에서 미루어 볼 때, 蘇聯의 統制力은 제한되어 있을 것이다. 너슨의 訪蘇前夜 (1972年)에 越盟은 軍事作戰을 계속, 결국 美國의 하이퐁港氣笛

부설을 유도했으며 이러한事態의進展은 蘇聯에게 當황스러운 것이었다. 특히 中·蘇聯紛争은 小國에게 策略의 機會를 주고 있다.

어떠한 狀況에서 蘇聯은 南韓認定 또는 南北韓의 和解를 돕는 方向으로 政策을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인가? 116)

美國이 北韓과 진정한 對話에 들어 가고 美國에 「連結事務所」를 설치하는 問題를 제기하게 될 때, 蘇聯은 對南關係를 再考慮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問題는 中·蘇는 계속 南韓을 거부하는 狀況에서 美國만이 北韓과의 關係를 개선할지 모를 可能性이다.

## 章四章 結 論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四強의 對韓政策은 아직 韓半島分斷의 安定化(또는 合法化)라는 원래의 構想대로 전개되지 못하고 있다. 그 가장 주요한 理由는 南北對話의 停止・膠着 때문이며 특히 北韓이 「2個의 한국」을 완강히 거부하기 때문이다. 이 점은 南北問題는 國際問題이면서 동시에 内部問題라는 평범한 眞理를 일깨워 주고 있다고 보겠다.

그러나 前章에서 여러 차례 지적된 바와 같이 南北問題가 四強体制의 安定化(또는 不安定化)에 줄 수 있는 波及效果 때문에 결국 韓半島問題의 進展을 위한 국제적 次元의 協商과 壓力이 제기될 것이며 동시에 南北關係의 安定化를 희구하는 民族的 需要도 증대할 것이다. 특히 과도한 국방비로 經濟面에서 심각한 苦痛을 겪고 있는 北韓도 内部需要로 인하여 協商테이블에 나올 可能性이 없지 않다.



< 註 >

- 1) 이 概念에 대해서는 Ernest E. Haas, Dynamic Environment and Static Systems : Revolutionary Regimes in the United Nations, Morton A. Kaplan(ed.), The Revolution in World Politics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1962), p.278.
- 2) 여기서 筆者는 「제시」라는 표현을 썼다. 그러나 그 표현은 경우에 따라 「強襲」 「要求」 「暗示」 「考慮」등 여러가지 표현으로 대치될 수 있을 것이다.
- 3) 이러한 東北亞秩序의 變型過程에 대해서는 A. Doak Barnett, The New Multipolar Balance in East Asia: Implications for United States Policy,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Vol. 390(July, 1970), p.74.
- 4) Allen S. Whiting, China's New Diplomacy, Problems of Communism, Vol. XX, No.6 (November - December, 1971), p.2
- 5) Melvin Gurtov, Sino-Soviet Relations and Southeast Asia: Recent Developments and Future Possibilities, Pacific Affairs, Vol. XLIII, No.4 (Winter, 1970-71), pp.494-95.
- 6) 아시아 集團保安論에 대한 蘇聯의 構想 B. Chekhonin, 이 어느정도 밝혀진 蘇聯側 論文은 Firm Guarantee, Izvestia, December 17, 1969 in Current Digest of the Soviet Press (以下 CDSP로 略称), Vol. XXI, No. 51 (January 20, 1970), p.24

- 7) 統一아랍共和國, 印度. 이라크와의 友好條約은 사실상 원시적 형태의 軍事同盟 (proto-military alliance) 의 性格을 갖고 있다. Vernon V. Aspaturian, Moscow's Options in A Changing World, Problems of Communism, Vol. XXI (July - August, 1972), p.3.
- 8) 美國側의 이러한 蘇聯觀이 잘 지적되고 있는 것은 예컨대 United States Foreign Policy, 1971 : A Report of the Secretary of State (Washington, D.C.: U.S.G.P.O., 1972), p.31; Harry G. Gelber, Limiting Factors in A Reconsideration of U.S. China Policies, Orbis, Vol. XIV, No.3 (Fall, 1970), p.600.
- 9) 美·蘇의 核均衡에 대해서는, 예컨대,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The Military Balance, 1971-72 (London, 1971); Walter D. Jacobs, Soviet Strategic Effectiveness,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26, No.1 (1972).
- 10) 예컨대 蘇聯의 時事評論家 Daniel Kraminov의 評論 參照. New York Times, May 6, 1971.
- 11) 越南戰을 둘러싼 美國과 西歐의 見解對立과 그 意味에 대해서는 Richard Lowenthal, America's Asian Commitment, in Wesley R. Fishel (ed.), Vietnam: Anatomy of A Conflict (Itasca, Ill. F.E. Peacock, 1968), p.718.
- 12) Richard Nixon, United States, Foreign Policy for the 1970's, A New Strategy for Peace : The President's Report to the

Congress and the Nation on American Foreign Policy, 1970

(New York : Bantam Books, 1970), pp. 5-6.

닉슨 독트린의 核心은 「自動的 軍事介入에서 自主的·選擇的 軍事介入」으로의 轉換에 있다. 그 구체적 內容은 ①亞細亞·太平洋地域에 산재해 있는 前哨防衛地로부터의 점진적인 減縮의 態勢 ②美國 政府는 必髮할 경우 다소의 물질적 支援을 제공할 것이나 아시아 中小諸國은 자체의 財源에서 소요되는 軍備를 充當할 것 ③美國이 必要하다고 생각하는 美國의 公約, 特히 韓國과 같은 國家와의 對外防衛條約의 義務는 유지될 것임을 보장한다는 點이다.

Bernard K. Gordon, Korea in the Changing East Asia Policy of the United States, in Young C. Kim (ed.), Major Powers and Korea (Silver Spring, Md.: Research Institute on Korean Affairs, 1973), p.37.

- 13) Ibid, pp.52-59. 美國의 이러한 期待가 잘 나타난 文書의 하나가 1969年 11月の 닉슨-사토(佐藤榮作) 共同聲明이다.
- 14) Kei Wakaizumi, Japan Beyond 1970, Foreign Affairs, Vol. 47, No.3 (April, 1969), p.509; Herman Kahn and Max Singer, 『Japan and Pacific Asia in the 1970's,』 Asian Survey, Vol. XI, No.4 (April, 1971), p.399.
- 15) Kenneth Ray Young, The Asia - Pacific Conference on Cambodia, Asian Forum, Vol. III, No.2 (April - June, 1971), pp. 104-10.
- 16) Lawrence W. Beer, Japan Turning the Corner, Asian Survey, Vol. XI, No.1 (January, 1971), pp. 82-83.

- 17) Pyong-Choon Hahm, Korea and the Emerging Asian Power Balance, Foreign Affairs, Vol.50, No.2 (January, 1972), pp. 342-43.
- 18) 中共의 判断에 대해서는 예컨대 1969年 8月1日字 人民日報·紅旗·解放軍報의 共同社說 参照 Peking Review, August 6, 1969 (No.32), pp.5-6에 게재. 또는 An Chun-tao, 『Another Step in New Tsars' Expansion in Asia,』 Peking Review, September 7, 1969 (No. 37), p.20. 또는 周恩來의 뉴욕 타임즈紙 編輯局長 레스톤 (James Reston) 과의 會見記 New York Times, August 10, 1971.
- 19) 이와 비슷한 分析으로 G.F. Hudson, 『China's New Diplomacy,』 Problems of Communism, Vol. XX, No.6 (November - December, 1971), p.7, Il-Pyong Kim, Communist China's Foreign Policy and Korean Unification, Korean Frontier, Vol.3, No.1 (January, 1972), p.15
- 20) Tadeo Ishikawa, Outlook on Sino - Japanese Relations, in Young C. Kim (ed.), Japan in World Politics (Washington, D.C.: Institute for Asian Studies, 1972), pp.45-46; Mildred C. Vreeland, 『Communist China and Japan: A Study of Chinese Perceptions』 and Policies, in Ibid., pp.87-89; Shao-Chuan Leng, 『Chou En-lai's Japan Policy,』 Asian Forum, Vol. IV, No.4 (October-December, 1972), pp. 6-7.
- 21) 註18의 Tadeo Ishikawa, pp. 42-44.

- 22) 이러한 諸局面에 대한 分析을 위해서는 Young C. Kim, Japanese - Soviet Relations : Interaction of Politics, Economics and National Security, The Washington Papers, Vol. I, No.8 (Bervery Hills: Sage Publications, 1974).
- 23) 이러한 側面에 대해서는 Hanson W. Baldwin, Strategy for Tomorrow (New York : Harper & Row, 1970), p. 243.
- 24) New York Times, May 10, 1971.
- 25) 中·日復交를 前後한 兩國政府의 態度變化와 復交의 原則 및 過程에 대해서는 Shinkichi Eto, 『Japan and China: A New Stage?』 Problems of Communism, Vol.XXI (November - December, 1972), pp. 1-17.
- 26) C.G. Jacobsen, 『Strategic Considerations Affecting Soviet Policy toward China and Japan,』 Orbis, Vol. XVII, No.4 (Winter, 1974), p. 1191.
- 27) Ibid., pp. 1191-92. 한편 中共의 核能力 및 對蘇核配置 狀況에 대하여 좀더 무거운 評價를 하고 있는 分析에 대해서는 Harry Gelber, 『Nuclear Weapons and Chinese Policy,』 Adelphi Papers, No. 99 (London: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1973), II (Force).
- 28) 예컨대 1971年 3 - 4月에 소집된 第24次 蘇聯共產黨大會에서 採択된 第9次 5個年經濟計劃(1971-75)은 民生의 安定에 대한 配慮가 두드러진다.  
U.S. News & World Report, April 5, 1971; Christian Science Monitor, May 3, 1971.

第9次 5個年經濟計劃에 대한 評價로는

Leonard Schapiro, 『Keynote - Compromise,』 Problems of Communism, Vol. XX(July - August, 1970), pp.2-3.

29) 美·中共首腦會談과 이에 따른 周恩來-닉슨 共同聲明이 발표된 3週後 모스크바에서 있었던 第15次 蘇聯勞組總會에서 브레즈네프는 분명히 5月로 예정된 닉슨과의 會談을 의식하고, 現狀認定과 緊張緩和로 요약되는 「역사적」인 演說을 하였다.

30) 第1段階 SALT協定을, 蘇聯이 大陸間誘導彈(ICBM)에서 美國이 複數個別目標照準 再突入多頭彈(MIRV)에서 각각 相對方보다 유리하도록 체결되었다. 그러나 美國側은 이 協定이 蘇聯에게도 MIRV에 있어서 質的改善을 가능하게 하고 美國보다 優位에 서게 만들 虛點을 갖고 있다고 보기 시작했다. 예컨대 Colin S.Gray, 『Rethinking Nuclear Strategy,』 Orbis, Vol. XVII, No4 (Winter, 1974), P.1147.

第2段階 SALT協商에서 兩國은 「원칙적인 難關의 突破口」를 마련, ICBM과 MIRV 發射用 潛水艦誘導彈數를 雙方이 수락하는 일정한 水準으로 제한하는 새로운 8個年(1977-85年)協定을 체결하고 80~81年 이전에 85年 이후에 시행될 追加核武器制限 및 減縮協商에 參加한다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제2단계 SALT協定이 기술적인 核武器競爭(technical nuclear arms race)을 본질적으로 억제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SALT 會談에 대한 최근의 分析으로 Paul H. Nitze, 『The Strategic Balance Between Hope and Skepticism,』 Foreign Policy, No.17 (Winter, 1974-75), pp. 136-56; David Aaron, 『A New Concept,』 Ibid., pp. 157-65.

31) 74年3月 蘇聯은 Tyumen project에 관한 日本과의 協調案에 있어서 중대한 變化를 의미하는 修正案을 제의했다.

그것은 「Tyumen Oil을 日本에 수송하기 위한」 新시베리아 横断鉄道の 建設案이다. 이것은 군사적·정치적 意味가 크며 특히 日·中國係와 日·美國係를 저해할 要因이 크다하여 日本 輿論에 逆反應을 가져왔다.

- 32) 中·日 태탕트 可能性에 대한 蘇聯의 變慮는 60年代 末에도 뚜렷했다. 예컨대 Yu. Bandura, 『Slavish Repetition, Izvestia, September 3, 1969 in CDSP, Vol. XXI, No. 36 (October 1, 1969), p.13.
- 33) David W. Chang, 『China's Foreign Policy in Multipolar - Asia Today,』 Asian Forum, Vol. V, No.2 (April - June, 1973), pp. 1-22.
- 34) 이러한 視角을 「強大國病症」 (big-power syndrome) 이라고 비판하는 論文도 있다. Sung Chul Yang, 『Korean Unification : A Functionalist Model,』 Journal of Korean Affairs, Vol. II, No.2 (July, 1972), pp. 8-20.
- 35) 李基鐸. 『東北亞秩序의 再編과 韓國: 南北韓國係의 諸條件에 對한 檢討,』 政治行政, 1号 (1973年 6月), P.76
- 36) Robert A. Scalapino, 『The United States and Asia,』 in Paul Seabury and Aaron Wildavsky (eds.), U.S. Foreign Policy: Perspectives and Proposals for the 1970's (New York: McGraw - Hill Book Co., 1969), pp. 123-50.
- 37) U.S. Congress, Hearings Before Subcommittee on United States Security Agreements and Commitments Abroad of th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Senate, United States Security Agreement and Commitments Abroad, 91st Congress, 2d Session, Part 6 Washington, D.C.: U.S.G.P.O., (1970), pp. 1680-81.

- 38) Major General Felix M. Rogers 의 AP 通信과의 會見( 71年 7月5日 ).  
New York Times, July 7, 1971.
- 39) Report of the Henry C. Lodge Commission on United Nations membership. New York Times, April 27, 1971; 한편 당시 駐韓美大使 포터도 美國內에서 南北韓 유엔 同時加入에 관한 「新聞紙上의 論議」(Press discussion)가 있음을 議會에서 證言했다.  
U.S. Congress, Hearings Before the Subcommittee on Foreign Affairs, House of Representatives, American - Korean Relations, 92nd, Congress, 1st Session (June, 1971) (Washington, D.C.: U.S.G.P.O., 1971), p.10.
- 40) New York Times, March 8, 1972.
- 41) 新萃社 通信報道. Foreign Broadcasting Information Service, Daily Report, February 28, 1972.
- 42) 유엔軍司가 해체되는 경우 休戰協定이 有効한가 또는 失効인가에 대한 國際法上의 解釈에 대해서는 金達中. 『韓國安保定策의 現實化問題: UNC를 中心으로.』 外務部 外交研究院 政策報告書( 1974年 3月 ), PP.13-20.
- 43) 에킨대 포터美國務次官은 73年 10月3日 『韓國休戰協定에

배치되는 協定을 탐색하여 合意 할 用意在 있다』고 밝혔고, 키신저 國務長官은 同年 12月 6日 유엔軍司나 休戰協定이라는 表現을 쓰지 않고 「韓國問題에 대해 취해진 協定」이라고 표현하면서 『20年前에 締結한 協定에 積極적 態度를 취하지 않고 이를 討論할 用意在 있으며…… 이 協定을 現事態에 맞출 수 있는 方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44) 朝鮮日報, 1974年 8月 7日.

45) 朝鮮日報, 1975年 6月 28日.

46) 이 點에 關해서는 筆者의 다음論文 参照. Hak-Joon Kim, 『An Analysis of the Current Issues in the North-South Dialogue,』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VI, No.2(Spring, 1975), pp. 17-38.

47) 註 43의 American - Korean Relations, P.8.

48) 李基鐸, 『日本の 對中共政策의 속셈,』 新東亞 (1971年 12月), PP. 88-95: 이와 비슷한 時機에 美官邊으로부터 北韓軍의 兵力水準이 38萬名線임에 비추어 韓國軍을 그 水準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主張이 있었다는 報道가 있었다. 예컨대 Newsweek, May 17, 1971, p.21; Washington Post, July 4, 1971; New York Times, July 14, 1971.

49) The Implications of Chinese Nuclear Force for U.S. Strategic and Arms Control Policies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January, 1973).

한편 Allen S. Whiting 教授도 71年 6月 28日 美上院外交 委證言에서 美·日·中·蘇에 의한 東北亞非核地帶化案을 제시하였고 특히 『韓國에 核武器를 배치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다

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東亞日報, 1971年 6月 29日,  
당시 訪韓中이던 美國務省 國際安保擔當政策企劃室長 레온스로  
스도 南北尙의 軍縮을 主張하였다. 東亞日報, 1971年 6月  
28日, 그런데 화이팅이나 슬로스는 韓半島의 中立化를 말한  
것은 결코 아니며, 실질적 緊張緩和를 위한 手段으로서 軍縮  
을 말하고 있다.

- 50) Mike Mansfield, 『U.S. Foreign Policy in a Changing Pacific and Asia,』 Pacific Community, Vol. V, No.4 (July, 1974), p. 483.
- 51) Gregory Henderson, 『Korea,』 in Gregory Henderson, Richard Ned Lebow, John G. Stoessinger (eds.), Divid Nations in a Divided World (New York : David Mckay Co., 1974), pp. 88-90.
- 52) Selig S. Harrison, 『One Korea,』 Foreign Policy, No.17 (Winter, 1974-75), pp. 60-62.
- 53) 예컨대 스칼라피노는 「中立化된 統一韓國」의 提議의 非現實性을 지적한다. Robert A. Scalapino, Asia and the Major Powers: Implications for the International Order (Washington, D.C.: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 1972), p.90.
- 54) 引用符号 속의 句節은 리더博士의 證言. Testimony of Dr. Stefan H. Leader, Staff Associate, Center for Defense Information, before the House Foreign Affairs Subcommittee on Asian and Pacific Affairs, October 2, 1974, p.5

그는 美軍이 3年期間에 韓國에서 完全 철수할 것을 強調  
했다. Ibid., P.2.

- 55) Ibid., PP.3-4. 블랙먼博士는 리더보다 좀 더 신중히 평가  
하고 있다. 그는 『中共의 介入만 없다면 南韓軍은 美空軍의 支援만으  
로 어떠한 攻撃을 저지하기에 적합하다』고 보고있다 Barry M. Bleckman,  
Jeffrey Record, and Martin Binkin before the Subcommittee  
on Manpower and Personnel of the Senate Committee on  
Armed Service, April 11, 1975, p.5

이밖에 韓國에 대한 漸進的인 디스인게이지먼트 政策을 옹호  
하는 主張의 文獻은 다음과 같다.

- ① Report prepared by James G. Lowenstein and Richard M.  
Moose for the Senat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U.S.  
Senat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Korea and the  
Philippines, November 1972, 93rd Cong., 1st Sess.  
(February 18, 1973), pp. 44-46 ② Senator Stuart  
Symington's remarks on the report, Congressional Record,  
93rd Cong., 1st Sess., Vol. 119, No.26 (February 20, 1973),  
S2881. ③ Senator Charles H. Percy's report to the Senate  
after his trip to the Far East in November-December, 1972,  
Ibid.

- 56) 四極構造의 安定性과 美軍撤收論에 대한 일체의 批判  
에 대해서는 Young Hoon Kang, 『U.S. - South  
Korean Security Relations : A Korean Perspective,』 A  
Paper prepared for the Conference on Korea and the Major  
Powers,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May 1-3, 1975.

- 57) Morton Abramowitz, 『Moving the Glacier : The Two Koreas

and the Powers,』 Adelphi Papers, No. 80 (London: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1971), p.11.

58) Ibid., P.24. 「東北亞安保會議」의 參加國으로 그는 南北韓 및 四強을 지적하고 其他國도 초청될 수 있다고 보았다.

59) Ibid., P.11

60) 애브라모워츠의 遠隔抑止力論에 대한 批判은 註 56. P.23-24.

61) 예컨대 註 55의 Lowenstein - Moose report 도 이 점을 강조하고 있다.

62) Secretary of Defense James R. Schlesinger, Annual Defense Department Report, FY 1976 and FY 1977 (Washington, D.C: U.S.G.P.O., 1975).

63) 슬레진저의 韓國拠点構想은 그 싹을 다음의 著書에서 볼 수 있다. Richard Moorsteen and Morton Abromowitz, Remaking China Policy: U.S. - China Relations and Governmental Decisionmaking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pp. 25-26 : Quite possibly the confluence of Japanese nationalism, affluence, and doubts about the United States will leave us little we can do. But Japan's course will be greatly influenced by Peking, and Peking too may mislead our intentions. For example, what if we try to adjust to Japanese nationalism by shifting certain military functions from Japan and Okinawa to South Korea? .....

A move to South Korea would increase our presence on the Asian mainland and could signal our intention to stay there indefinitely. China might take it as a further U.S. threat. But it yields to Japanese nationalism without generating additional pressure for Japanese rearmament by undermining our security guarantee. Could Peking conceivably view this as tolerable? This in part depends on a reading of our general intentions in the area.

64) Ralph N. Clough, East Asia and U.S. Security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1975), pp. 29-34.

65) The prospects for Japan's remaining a lightly armed, nonnuclear power would be sharply diminished.』

라는 表現을 쓰고 있다. *ibid.*, P.34.

66) *Ibid.*, PP.34-35.

67) 이 報告書는 유엔軍司의 解體에 대한 代案으로 非同盟國家의 部隊로 구성된 유엔平和監視軍 (a U.N. peace observation force, composed of units from nonaligned countries) 의 非武裝地帶駐屯을 제의했다. 이 平和監視軍은 紛爭을 감소시킬 것이며 美軍의 漸進的 撤収에 유리한 雰圍氣를 조성할 것이라 는 것이다. 이 報告書는 平穩이 이 提議를 韓國問題에 대 한 外勢의 干涉排除라는 名分으로 반대할 것이나, 유엔軍司解體에 대한 交換條件으로 내놓을 수 있다고 보았다. *ibid.*, P.174.

68) 예컨대 ①슬레진저 國防長官의 記者會見 (75月 5月1日과

5月18日). 後者에서 北韓이 南侵하면 敵의 心臟部를 강타하겠다고 언명함. ②下院民主党議員 56명의 共同声明(75年 5月12日) ③美上院軍事委報告書(75年 5月20日) - 『韓國이 自力으로 防衛體制를 굳힐 수 있음을 확인하지 않은 채 韓國에서 美軍을 철수시키는 것은 심리적·군사적으로 보아 美國의 利益에 유해하다. 』

- 69) Nathan White, 『Search for Peace: The Four Powers and Korea,』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VI, No.1 (Winter, 1974/75), pp. 45-46.
- 70) Zbigniew Brzezinski 教授의 外信記者클럽에서의 發言. (75年 5月26日).
- 71) 四強에 의한 韓半島安保案에 대한 대표적 批判은 註53, P.90
- 72) 註18, New York Times, op. cit.
- 73) 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Documents on International Affairs, 1949-1950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53), p. 543.
- 74) Kamiya Fuji, 『China's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Vol.3, No.1 (January, 1972), p.130.
- 75) 로동신문. 1970年 4月6日
- 76) 朝鮮日報. 1975年 4月21~26日

- 77) 中共이 平壤의 立場을 계속 지지하는 理由는 첫째 蘇·北韓 關係의 密着은 中共의 安保에 重大한 問題를 제의하며, 둘째 台灣·中共關係가 매듭지어 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Robert A. Scalapino, 『The Asian Policies of the PRC,』 Current Scene, Vol XII, No. 10 (October, 1974), p.6.
- 78) 예컨대 周恩來는 美下院의 Hale Boggs 民主党 下院院內 總務와 Gerald R. Ford 共和黨 下院院內總務의 中共訪問視 同曄의 発言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Ilpyong J. Kim, 『A New Approach to the Soviet Union and China: Korea's Strategy for Survival,』 Young C. Kim (ed.), Foreign Policies of Korea (Washington, D.C.: The Institute for Asian Studies, 1973), p.29 脚註: 鄧小平과 키신저와의 會談에서 同曄의 論議. 東亞日報. 1975年 4月16日.
- 79) Ilpyong J. Kim, Korea and China's Foreign Policy,』 in Jae Kyu Park and Sungjoo Han (eds.), East Asia and the Major Powers : From confrontation to Accomodation (Seoul: Kyungnam University Press, 1975), pp. 79-81.
- 80) Ishwer C. Ojha, 『China's New Diplomacy: The Role of East Asia, in Ibid., pp. 35-36.
- 81) Chae-jin Lee, 『The Development of Sino-Japanese Competition over Korea,』 in 註78, pp. 37-46.
- 82) 人民日報 紅旗 解放軍報의 共同社說. 1972年 1月1日.

- 83) 註53. PP.30 - 31 <sup>여기에 주로 참조된 것은</sup> ibid, pp. 10-20; Richard Halloran, Japan: Images and Realities (New York: Alfred A. Knopf, 1969), pp. 206-209; Robert E. Osgood, 『Japan and the United States in Asia,』 SAIS Review, Vol. 11, No.3 (Spring, 1967), pp. 3-21.
- 85) 日本의 中立問題에 대한 分析을 위해서는 Kunio Muraoka, Japanese Security and the United States, Adelphi Papers No.95 (London: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1973), pp. 28-30.
- 86) 日本의 核武裝制約論에 대해서는 Masataka Kosaka, Options for Japan's Foreign Policy, Adelphi Papers, No.97 (London: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1973), pp. 17-22.
- 87) Kiichi Saeki, 『Japan's Security in a Multipolar World,』 in East Asia and the World Systems (2 Vols. : London: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1972), pp. 26-28.
- 88) 東亞日報, 1971年 9月 27日
- 89) 이 問題에 관해서는, Young C. Kim, Japanese Policy toward Korea, 註12, Kim, pp. 53-54 參照
- 90) 이 일련의 計劃에 대한 分析에 관해서는, 李相九, 『韓·美·日 軍事提携 關係의 展開過程.』 國際政治論叢, 第十輯 (1970), PP.73-74.

- 91) 이것이 美·日安保條約에 있어서 이른바 「極東條項」 (the Far East Clause)의 問題로서 解釈이 구구하다. 이 問題에 관한 가장 權威있는 解釋의 하나는 Young C.Kim, 『Japan's Security Policy Debate,』 in 註20, Kim, PP.61-66.
- 92) 이러한 「同盟體」는 「東北亞條約機構」(NEATO) 또는 「太平洋條約機構」(PATO) 등으로 불리웠다. 이 「同盟體」의 出現可能性은 닉슨의 大統領就任과 더불어 높아졌던 것으로 한 때 관측되었었다. 그 論拠는 닉슨이 67年 4月 인도네시아를 여행중 Marshall Greene 駐印尼大使의 進言에 따라 日本의 再武裝許容과 이에 따른 日本中心의 東北亞地域 安保機構의 創設을 內容으로 하는 論文을 발표한데 있다. Richard M. Nixon, 『Asia After Vietnam,』 Foreign Affairs, Vol. 46, No.1(October, 1967), P.115. 닉슨이 大統領에 취임한 뒤 Richard Halloran 東京特派員의 同旨의 論文이 발표됐다. R. 헤로란. 『PATO-太平洋條約機構,』 世界週報, 1970年 8月 18日号. 日本人들은 이 論文을 닉슨行政府의 觀測氣球로 이해했다. 藤島字内, 『在韓美軍削減と PATO 構想,』 中央公論, 1970年 11月号. 註P.86에서 再引用.
- 93) 朝日新聞, 1965年 4月 5日
- 94) 「아시아 不介入 3原則」은 70年 2月 7日 사토首相의 施政方針演說에 대한 代表質問에 나선 社会党的 成田委員長은 ①南北韓과 南北베트남의 統一問題와 台灣問題들을 그 各該民族의 內政問題로서 확인할 것 ②이들 諸民族의 內政問題에 대한 武力介入인 駐日美軍의 韓國과 台灣 및 베트남 등의 出擊에 반대한다 ③他國의 內政問題에 개입하기 위한 自衛隊出動을 불허한다는 것을 주장했다. 註90, P.88에서 再引用.

- 95) 註 85, P.22
- 96) Soon Sung Cho, 『North Korea's Relations with Japan,』 in  
註 p.124.
- 97) 에컨대 , 『Tension - Easing on the Korean Peninsula,』  
Asahi Evening News, January 11, 1972.
- 98) Japan Times Weekly, January 15, 1972.  
사토가 「韓國條項」의 失効를 선언한 것은 당시 극적으로  
전개되는 美·中共 대탕트의 霧圍氣 속에서 그 霧圍氣에 어  
는 정도 접근하기 위한 일종의 재스처였다고도 볼 수 있다.
- 99) 朝日新聞, 1973年 6月23日
- 100) Guardian, October 5, 1971.
- 101) Asahi Evening News, January 24, 1972.
- 102) 韓·日條約 廢棄要求撤回는 朴成哲의 平野訪問記者團과의 會見  
參照. 朝日新聞, 1972年 9月8日: 對日請求權 拋棄는 金炳  
植의 言明參照. 朝日新聞, 1972年 8月18日.
- 103) 朝日新聞, 1974年 8月20日
- 104) Kimura's statement in 『Nikkan kankei o do seikon  
suruka』 (How to Rebuild the Japan-ROK Relations?),  
Economisto (The Economist), August 20, 1974, pp. 20-24.  
Kim Kwan-bong, 『Changing Perspectives in North Korea's

Policy toward Japan,』 East Asian Review, Vol. 1, No.4  
(Winter, 1974), pp. 398-400.

105) Charles B. McLane, 『Korea in Russia's East Asian Policy,』  
in 12, Kim, p.3.

106) 亞細亞政策研究院, 『亞細亞國際情勢의 變動과 韓國의 安保』 (서울,  
1975), p.36

107) 註105, pp.11-12

108) 韓昇助, 『蘇聯의 對韓半島政策: 『蘇聯의 外交政策의 決定要因과  
對韓半島定策代案을』 中心으로,』 高大亞研세미나 論文 (1974年  
7月), p.29.

109) 예컨대 Pravda, September 23, 1971의 「有益한 接觸」 表題下  
의 論評: Izvestia, August 31, 1972의 論評:—

110) 吉岡忠雄, 『南北의 急速한 接近에 對해 主저하는 蘇聯,』 每  
日新聞, 1972年 8月16日, 이 論評은 7·4 共同聲明에 對한  
蘇聯의 反應을 主로 다뤘음.

111) 예컨대 Pravada, November 5, 1972.

112) Donald S. Zagoria and Young Kun Kim, 『North Korea and the  
Major Powers,』 A paper prepared for a conference on Korea  
and the major powers, May 1-3, 1975,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p. 11에서 再引用

- 113) 그한 例로 74年 4月 伊太利 共産党機關紙 L'UNITA의 金日成會見. 金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There are those who cherish an illusion about imperialism and shun struggle against it and also people who try to seek security through an unprincipled compromise with it and those who are tired of the revolutionary struggle and are going to give up revolution or cowards who are afraid of making revolution.』 ibid.

- 114) Donald S. Zagoria, 『Soviet Policy towards the Korean Peninsula, A paper prepared for the Korea and the Major Powers Conference, May 1-3, 1975,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p. 1; Jane P. Shapiro, 『Soviet Policy towards North Korea and the Korean Unification Problem,』

金甲喆(編) 強大國과 韓半島 : 四強體制와 韓國統一問題 (서울 : 日新社), 訳本. P109.

- 115) Ibid., (Zagoria), pp. 4-5.

- 116) Ibid., pp. 6-7